

똑똑한 어린이를 위한 증권과투자 이야기

자본시장
이해하기
시리즈 1





KRX



목차



첫 번째 이야기

돈이란 무엇인가요? 006

두 번째 이야기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나요? 014

세 번째 이야기

기업은 왜 필요한가요? 024



네 번째 이야기

기업은 무슨 돈으로 물건을 만드나요? 032

다섯 번째 이야기

모든 기업이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나요? 042

여섯 번째 이야기

주식과 채권이 뭐예요? 054

일곱 번째 이야기

어린이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나요? 062



여덟 번째 이야기

주식가격은 어떻게 변하나요? 072

아홉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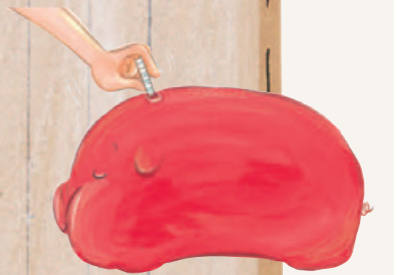
시세표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080

열 번째 이야기

주식투자는 위험하다던데! 088

열한 번째 이야기

저축은 왜 하나요? 100



열두 번째 이야기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108

열세 번째 이야기

투자 방법을 알려주세요! 116

열네 번째 이야기

좋은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124





돈이란 무엇인가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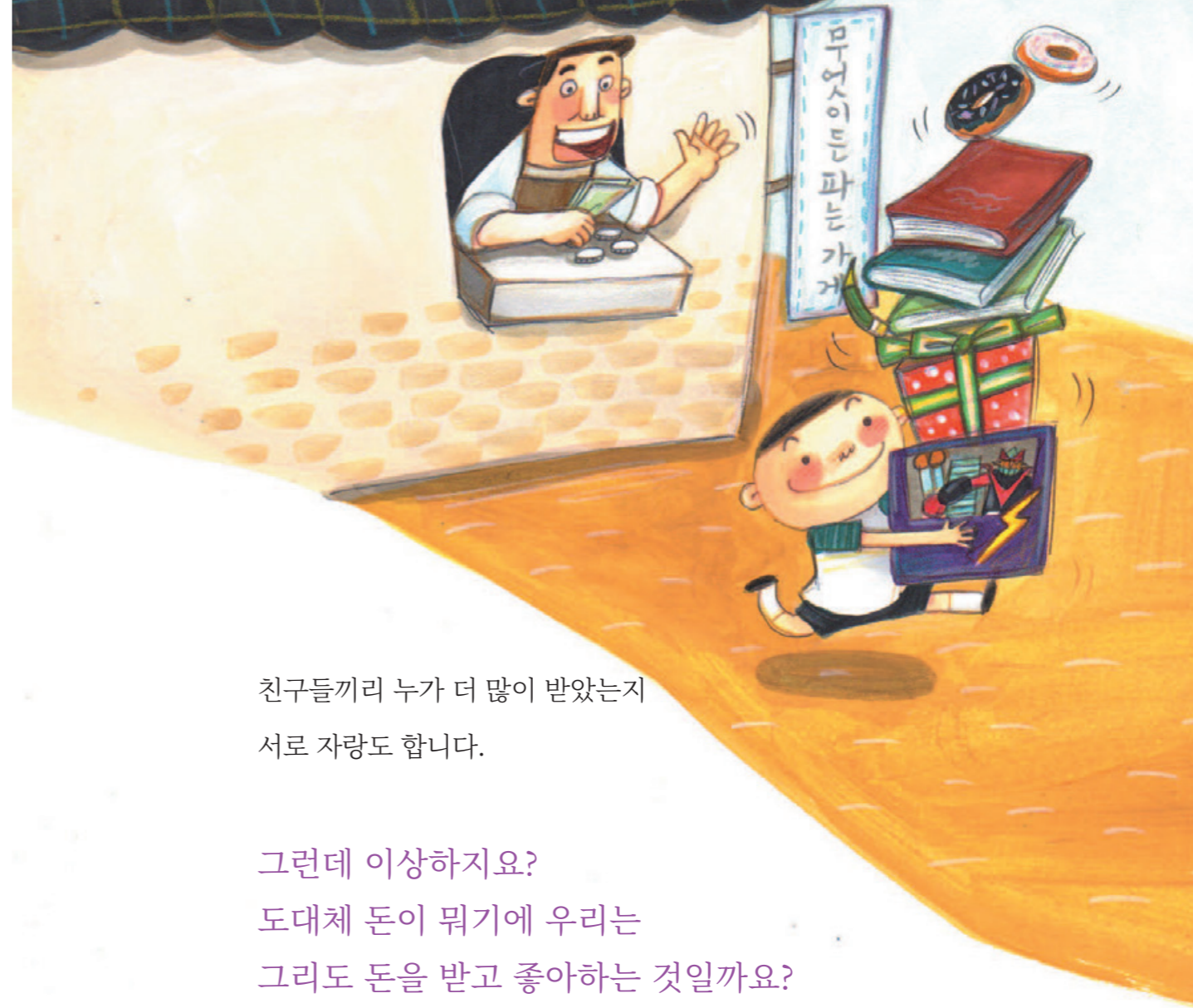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새 학년이 되고 새친구들도 만나지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고 꼭 이루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새해가 낫설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설날. 설날이면 세뱃돈 받을 생각에 새해가 더 기다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어디에 쓸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만 돈을 주시던 어른들이 설날만큼은 묻지도 않으시고 용돈을 주시니까요.

‘이번엔 세뱃돈으로 얼마를 받을까? 그걸로 뭘 할까?’




친구들끼리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서로 자랑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도대체 돈이 뭉기에 우리는
그리도 돈을 받고 좋아하는 것일까요?

돈은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아요.

먹고 싶은 빵도, 갖고 싶은 장난감도, 읽고 싶은 책도, 그리고 입고 싶은 옷도,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돈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일



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서로 필요한 물건을 맞바꾸어 가질 수도 있지요. 이렇게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는 것을 물물교환이라고 하는데 돈이 없던 옛날 옛적에는 모두가 물물교환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했답니다. 지금도 돈이 없다면 어떨까요?

지호네는 과일가게를 한답니다. 오늘은 지호의 생일날이라 생일파티에 쓸 케이크가 필요했어요. 엄마는 케이크를 구하기 위해 과일 한 바구니를 가지고 빵가게로 갔어요.

“이 과일을 드릴 테니 케이크를 주시겠어요?”

“나는 과일이 필요없어요. 내가 필요한 건 밀가루라고요.”

엄마는 다시 무거운 과일바구니를 들고 밀가루가게로 갔어요.

“이 과일과 밀가루를 바꾸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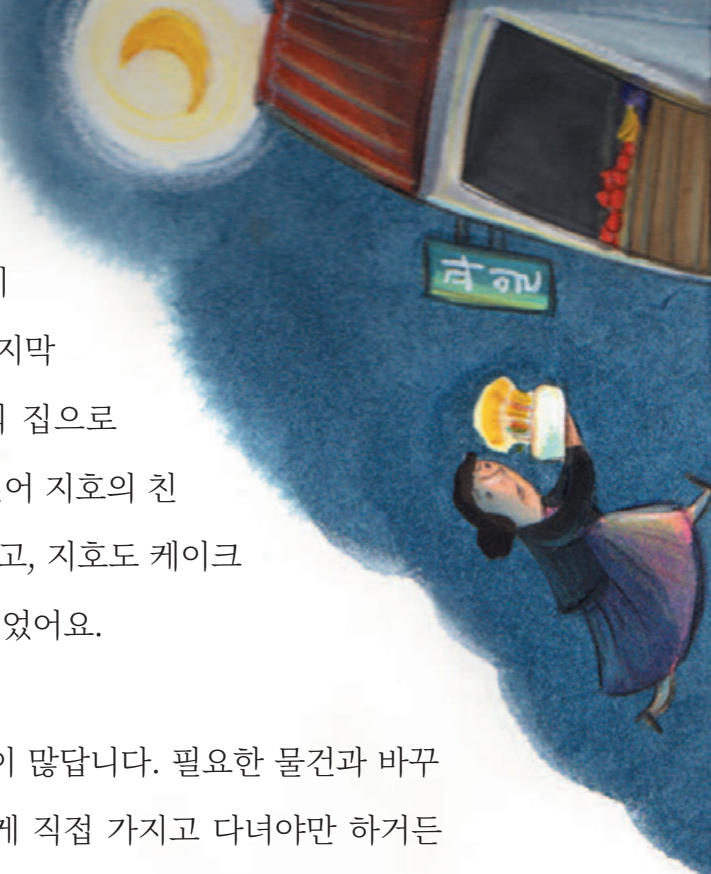
“난 과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은 고기라고요.”

엄마는 다시 정육점으로 달려갔어요.

“이 과일을 고기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합시다. 마침 달콤한 과일이 먹고 싶었거든요. 고기는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과일을 주고 고기를 얻은 엄마는 밀가루가게로 가서 고기와 밀가루를 바꾸었어요. 이미 무거운 과일바구니와 고기 덩어리, 밀가루를 들고 다니느라 힘이 빠진 엄마지만 지호의 생일 케



이크를 얻기 위해 힘을 내서 다시 빵가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가루와 케이크를 맞바꾸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이미 밤이 깊어 지호의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지호도 케이크를 기다리다 지쳐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이처럼 물물교환은 불편한 점이 많답니다. 필요한 물건과 바꾸기 위해 내가 가진 물건을 무겁게 직접 가지고 다녀야만 하거든요. 게다가 내가 가진 것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중에서 내게 필요한 물건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번에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만들게 된 거랍니다. 모든 물건 대신에 돈을 사용하면 모든 게 술술 풀리게 되니까요.

요즘 우리가 쓰는 돈은 종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처음에는 소금이나 조개껍데기 같은 것을 돈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러다가 금이나 은을 사용했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종이나 금속으로 만든 화폐를 사용하지요. 종으로 만든 화폐는 지폐라고 하고 금속으로 만든 화폐는 동전이라고 해요.



돈은 물건의 가치를 표시해주는 도구이지만 그 가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뱃돈을 받고 좋아하는 것도, 어른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모두 돈을 주면 원하는 것과 바꿀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에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동전에는 1, 5, 10, 50, 100, 500이라는 숫자가, 지폐에는 1,000, 5,000, 10,000, 50,0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숫자가 클수록 그 돈이 품고 있는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1원과 5원은 그 가치가 너무 작아서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잘 볼 수조차 없게 되어 버렸어요.

돈이 지닌 가치가 크다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물건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돈을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각 나라마다 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화폐의 모양과 단위, 그리고 값어치가 다르

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화폐에 대한 약속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답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원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달러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일본에서는 엔, 중국에서는 위안, 영국에서는 파운드를 화폐의 단위로 사용하지요.

물론 모든 나라가 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19개국에서는 유로라는 똑같은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화폐가 다르면 거기에 적힌 숫자가 지니는 가치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1원짜리 동전으로는 아무 것도 살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작지만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는 우리나라 1,000원짜리 지폐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와 모양이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로 여행을 갈 때는 그 나라의 화폐로 바꿔가야만 해요.

이렇게 한 나라의 화폐를 다른 나라의 화폐로 바꾸는 것을 ‘환전’이라고 해요. 환전을 할 때는 두 나라의 화폐가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정해진 교환비율에 따라 바꿔주는데 이때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해요.



이렇게 돈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금속이나 종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서로 가치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용카드란 것이 돈을 대신하기도 하지요.

어른들이 물건을 사면서 돈 대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카드를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카드가 바로 신용카드랍니다. 신용카드는 이름처럼 신용, 즉 믿음을 바탕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카드를 말해요.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당장에는 돈이 없어도 나중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물건을 주는 것이지요.

돈이 사람들의 약속과 믿음에 의해 가치를 지닌다는 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 ‘야프’에서는 바위덩어리를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위덩어리가 클수록 큰 가치를 지니지요. 어느 날 야프 섬 주민들은 더 큰 바위를 구하러 바다 건너 먼 곳으로 떠났어요. 아주 큰 바위를 구해 섬으로 돌아오던 이들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그만 바위덩어리를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아주 큰 바위의 주인을 야프 섬 최고의 부자라고 인정해 주었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주 큰 바위를 구했고 그 바위를 바다에 빠뜨렸다는 것을 같이 간 다른 야프 섬 사람들이 증언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는 돈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보까요?

돈은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갖길 바랍니다. 가끔은 돈을 탐내는 나쁜 사람들이 가짜 돈을 만들기도 해요. 가짜 돈은 위폐라고 하는데 위페인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 지폐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은 잘 보이지 않지만 불빛에 비춰 보면 볼 수 있는 숨은 그림도 있고요, 돈의 중간에 위에서 아래로 그어놓은 은색의 선도 있어요. 이 은색 선은 중간중간을 보이지 않게 가려 놓아 얼핏 봐서는 점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선입니다. 또 돈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볼록한 동그라미도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벌수있나요?

“따르릉~따르~릉”

지호는 알람소리에 눈을 떴어요.

세수를 하고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지호를 부르시네요.

“지호야, 아빠 출근하시는데 인사해야지.”

“아빠, 다녀오세요.”

지호네 아빠는 휴대 전화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시는데 매일 아침 지호보다 먼저 집을 나가십니다. 지호도 서둘러 집을 나와 학교로 향했어요.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친구들, 서류봉

투를 들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아저씨, 음악을 들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누나,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정리하는 가게 아줌마, 학교 옆 공사장에서 짐을 나르는 아저씨, 길게 늘어선 자동차.

학교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자동차들로 북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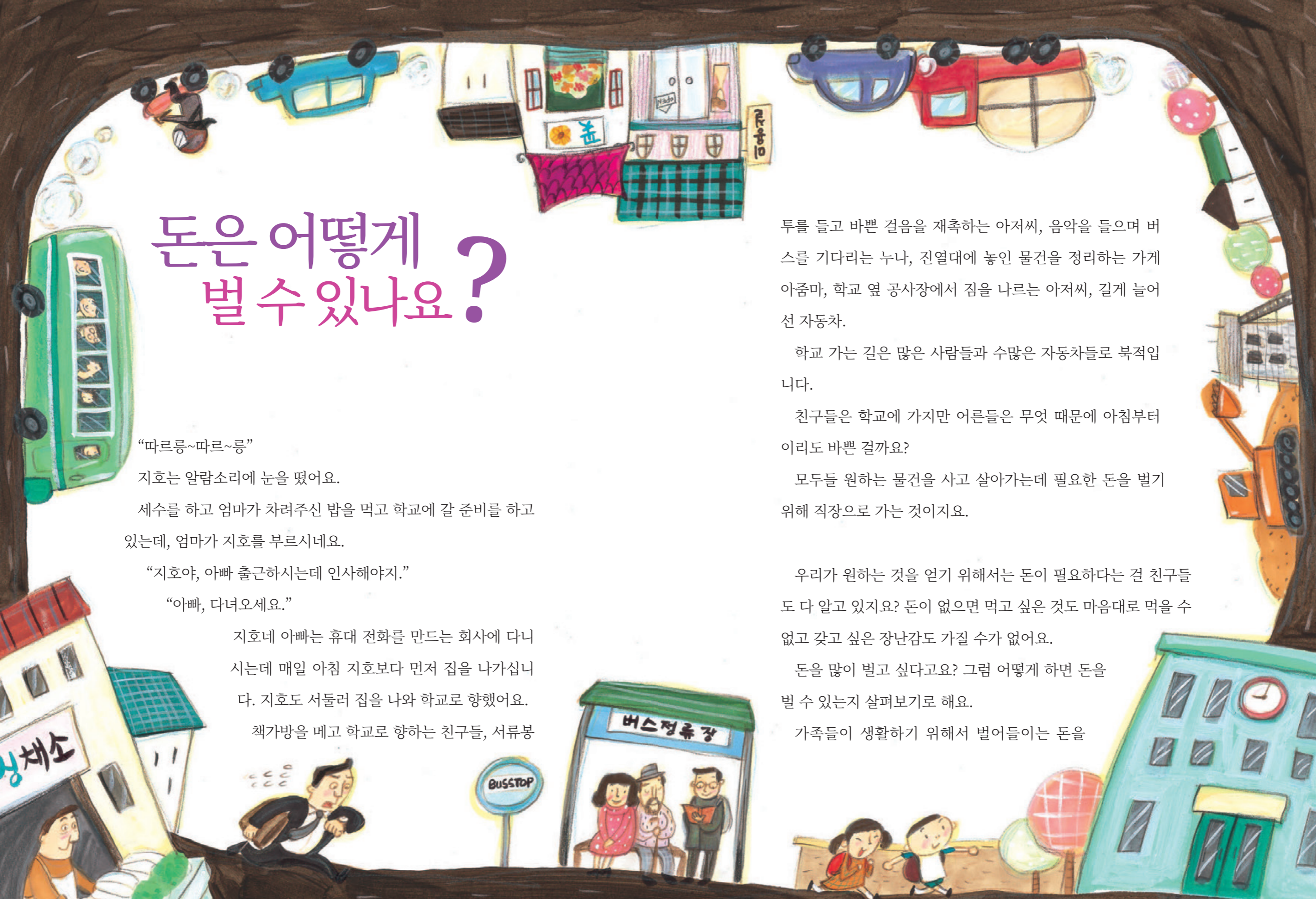
친구들은 학교에 가지만 어른들은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이리도 바쁜 걸까요?

모두들 원하는 물건을 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직장으로 가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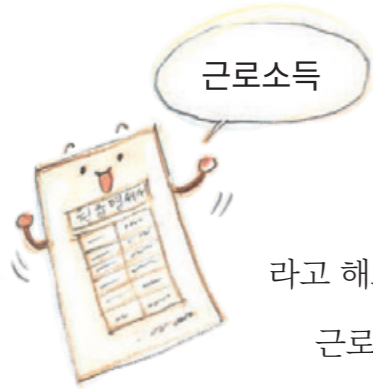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지요? 돈이 없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갖고 싶은 장난감도 가질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가족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소득이라고 하는데, 소득을 얻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호네 아빠처럼 회사나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을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근로소득은 지호네 아빠처럼 매일 출근해서 일한 대가를 1개월마다 모아서 월급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멋진 집을 짓는 아저씨들처럼 하루하루 일을 한 만큼의 근로소득을 일당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요.

두 번째 방법은 문방구, 미용실, 식당 같은 가게를 차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직접 가게나 회사, 공장을 경영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벌어들이는 돈은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

사나 가게를 차려야 하는데 이렇게 회사나 가게를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자본금이라고 해요. 가끔은 많은 자본금을 들여서 가게를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 너무 적어서 가게 문을 닫기도 하지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 돈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지요. 이것을 재산소득이라고 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일을 해야만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재산소득은 일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소득이지요.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수 있다니 정말 좋겠지요?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재산소득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고서야 재산소득이 많을 수는 없는 법이니깐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돈을 아껴 쓰고 저축을 하다보면 재산이 늘어나게 될테고, 그러면 그 재산이 또 더 많은 재산소득을 가져올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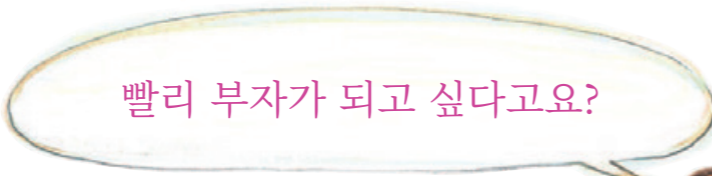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소개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빼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말하지요. 퇴직 후 받게되는 연금이나 생활보호지원금, 재해보상금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답니다.

지난 여름에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지고 집안에 있던 살림살이들이 모두 떠내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수재민 돕기 성금을 낸 적이 있지요? 그때 우리가 낸 성금이 수재민들에게 이전소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으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는 법이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들인 돈을 얼마나 아끼고 계획성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답니다. 매번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

을 벌 때마다 다 써버린다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요. 하지만 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매번 50만 원을 벌 때마다 20만 원씩 절약해서 아껴둔다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나중에는 그 돈이 모여서 큰돈이 될 수 있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어려서 직접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아껴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부자되기의 첫걸음이란 걸 명심해야 해요.



돈 이야기





지금은 실물이 아닌 가상화폐도 활발하게 통용되고 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동양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 중국진 나라 때 원형방공의 엽전이, 서양에서는 기원전 7세기경 지금의 터키인 리디아에서 처음으로 금속화폐가 만들어져 사용되었어!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해?

우리나라 속담에 '별 때는 개 같이, 쓸 때는 정승처럼'이란 말이 있는데...

공~ 잘난 척은...

이 말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화폐에 대한 개념이 확실했었다는 증거로,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버냐니깐?

이크~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장사 등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지!

회사? 장사? 에구~ 정말 어렵다. 어려워...

후후~

어린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선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장사 등의 경제 활동을 통해 성실히 돈을 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장사 하는 건 힘들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집안 청소를 돕거나 부모님 심부름, 그리고 아빠 구두를 닦아드리면 칭찬도 듣고 용돈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취감도 생기고 돈의 귀중함도 알게 될 거예요.



기업은 왜 필요한가요?

우리는 매일 옷을 입고, 거울을 보고, 그릇에 밥을 담아 먹습니다. 칫솔과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도 챙깁니다.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합니다.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봅니다. 공책에 연필로 글씨도 씁니다. 잘못 쓴 글씨는 지우개로 지우기도 합니다. TV를 보거나 컴퓨터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본 적이 있나요? 가방, 자전거, 책, 연필, 컴퓨터 등등.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사용해야만 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스는 필요한 물건은 직접 만들어 써야 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밥을 먹으려는데 그릇이 없었어요. 엘리스는 그릇을 만들 흙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산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를 타고 가야만 했답니다. 차가 없는 엘리스는 먼저 차부터 만들기로 했어요. 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몰랐던 엘리스는 차를 만든 적이 있는 토토를 찾아 갔지요. 토토에게 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과 만드는 방법을 물어 답을 구했지만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스는 종이에 써서 가려고 했지만 종이와 연필이 없었답니다. 엘리스는 종이와 연필을 만들기 위해 나무가 필요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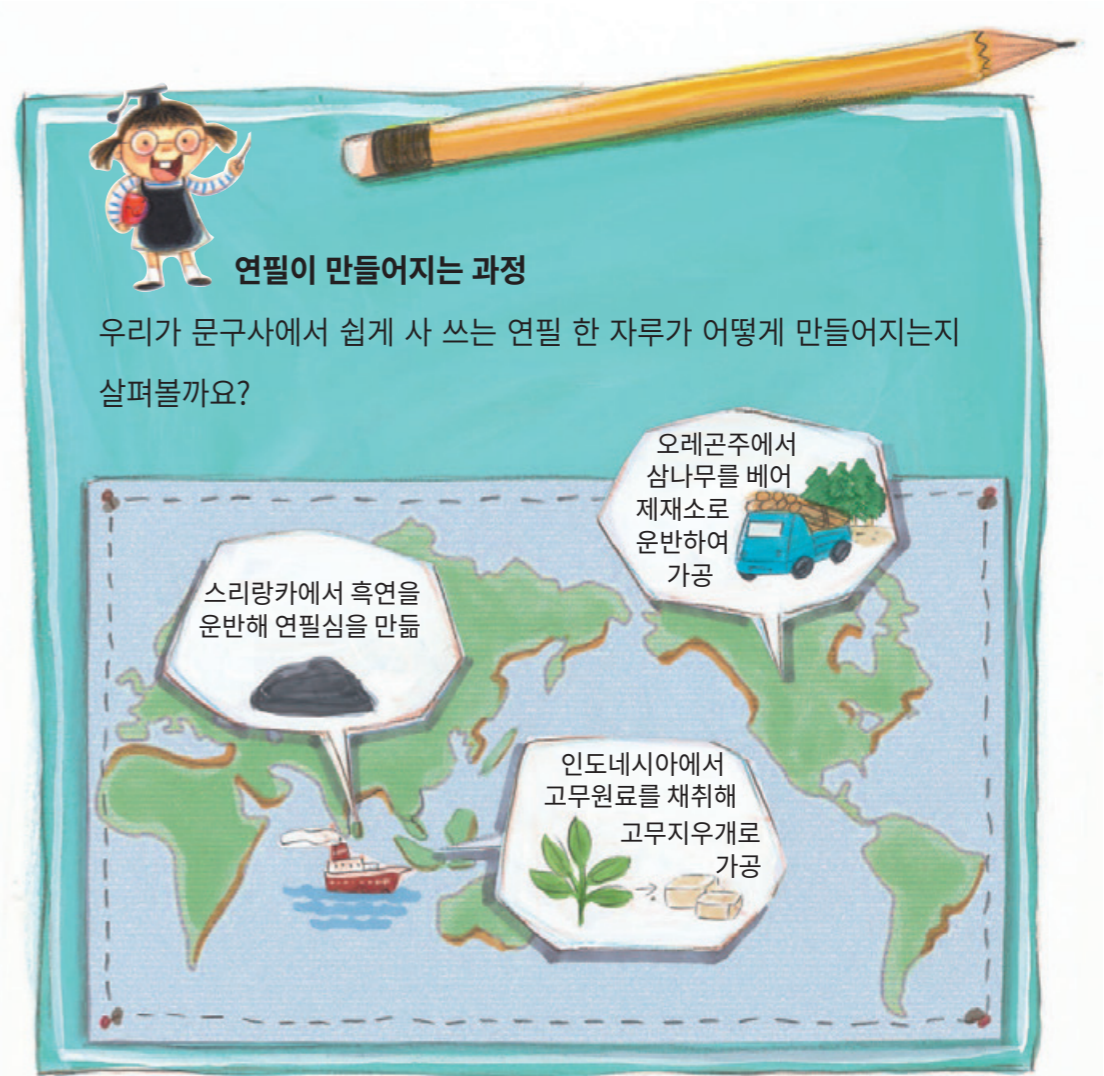
나무가 있는 산은 너무 멀어서 차가 없이 갈 수가 없었어요. 엘리스는 도무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어요. 이걸 하려면 저것이 필요하고 저걸 하려면 이것이 필요하고.

엘리스의 나라처럼 모든 것들을 직접 해야만 한다면 우리도 아마 엘리스처럼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날만 꼴딱 새우고 말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바로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지요. 기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대신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경제주체를 말한답니다.

기업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크게 재화와 서비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재화는 옷이나 그릇, 우산, TV, 자동차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우리가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위를 말하지요.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는 행위, 방송국이 TV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여주는 행위,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행위,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이 모두 서비스에 속하지요.

이제 기업이 왜 필요한지,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해요.

첫째, 기업은 우리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대신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요.



둘째, 기업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많은 사람들이 일할 만큼 큰 것은 아니랍니다. 또 일 자리가 많은 큰 기업만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용실, 문방구, 슈퍼마켓 등은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기업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기업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일을 하려는 사람의 수와 일자리의 수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10명인데 의사 자리가 2개밖에 없다면 나머지 8명은 일을 구할 수가 없겠지요.

일을 구하지 못해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해요. 또한, 실업자의 수를 일을 하려는 사람의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을 실업률이라고 한답니다.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의 수}}{\text{일을 하려는 사람의 수}} \times 100$$



셋째, 기업은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하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듯이 나라도 국민들을 위해 살림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요. 그런데 기업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나라에 내는 세금도 많답니다.



기업만 세금을 내나요?

세금은 기업만 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듯이, 아빠가 월급을 받아도 그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지요. 이렇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세금을 낸답니다. 장난감이나 과자, 학용품 등 물건을 사면 그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물건 값에 붙어있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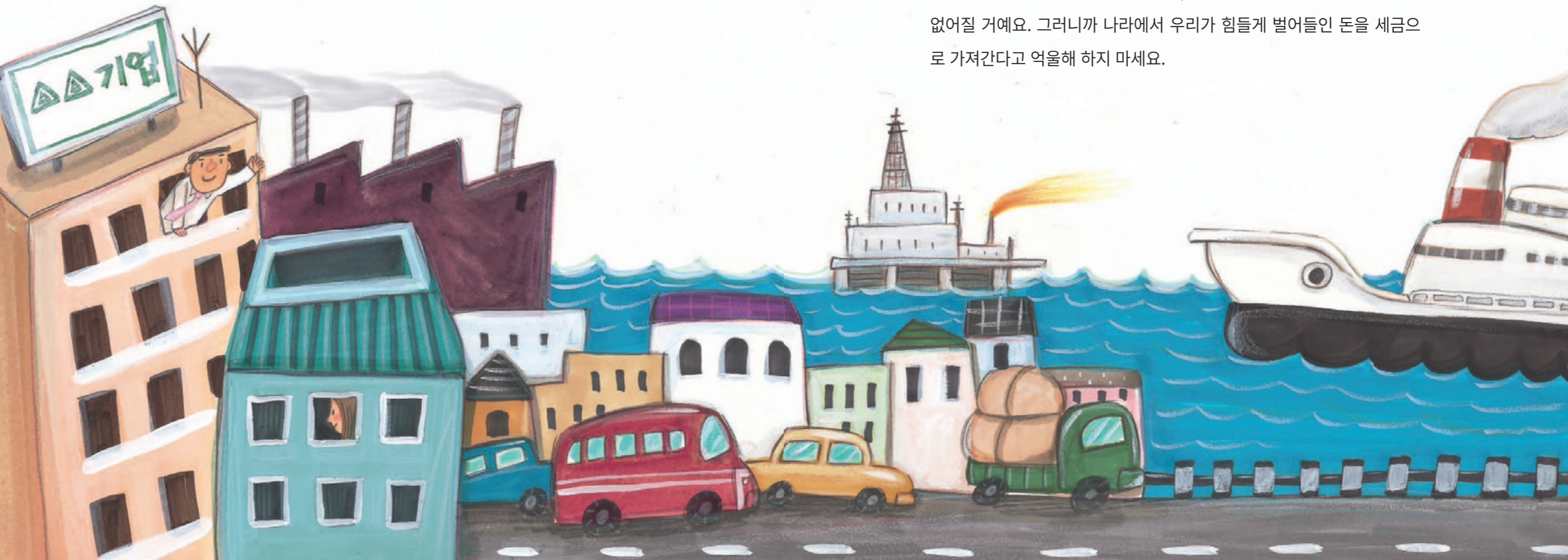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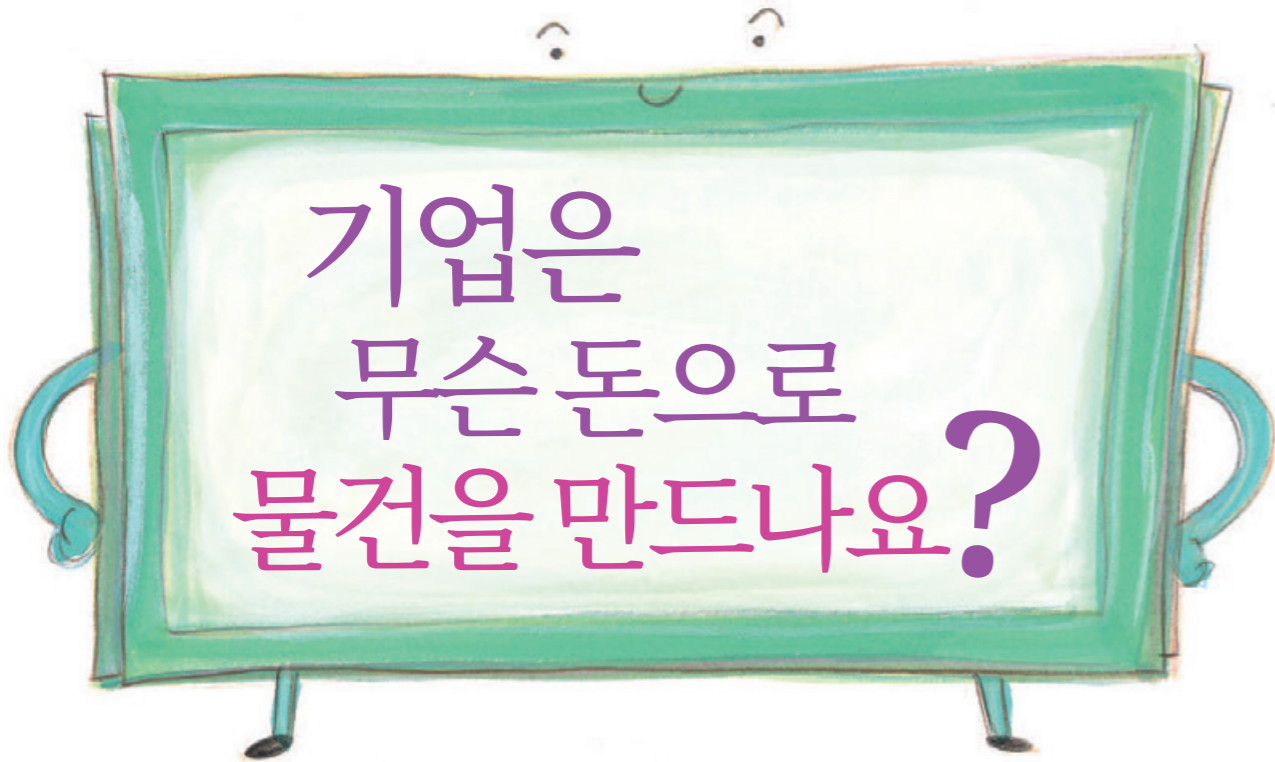
넷째, 기업은 벌어들인 돈 중에서 일부를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해요.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도 더 많아지고 결국 나라 경제도 더 많이 발전하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등은 이미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고 해요.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도 늘어나서 우리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되겠지요.



세금이 없으면 좋을까요?

만일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공원 같은 문화시설도 지을 수 없고, 도로도 만들 수 없어서 차가 다니기 힘들어져요. 또 도둑을 잡아주는 경찰관 아저씨도,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 아저씨들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우리가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억울해 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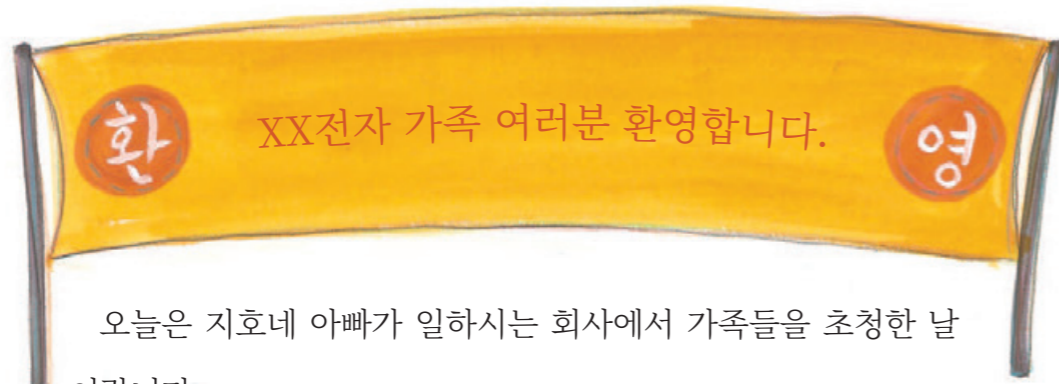




잠시 후 사장 아버씨가 인사를 하고 간단한 회사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일하신다는 아버씨의 안내를 받아 공장을 둘러보았어요.

공장 안은 커다란 기계들로 가득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의 말소리조차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기계들은 무척 빠른 속도로 크고 작은 부품들을 끼워 맞춰 휴대 전화를 만들어 냈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다 만들어진 휴대 전화를 검사하는 사람, 휴대 전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 등등.

지호에게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답니다.



오늘은 지호네 아빠가 일하시는 회사에서 가족들을 초청한 날 이랍니다.

방문 온 가족들을 반기는 현수막이 걸린 정문을 들어서자 경비원 아버씨가 웃으며 지호네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주셨어요. 지호네 가족도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공장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안 응접실에는 이미 많은 가족들이 와 있었답니다.



아빠, 사장님은 정말 부자인가 봐요? 이렇게 큰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회사가 사장님 것은 아니야. 사장은 이 회사가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경영자이고, 주인은 따로 있단다.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을 생산요소라고 해요.



생산요소는 크게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토지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땅을 말해요. 요즘에는 생산에 이용되는 천연자원도 포함됩니다. 물, 나무, 석유, 가스 같은 것들이지요.

노동은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노력을 말해요.

자본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든다면 이때 필요한 유리, 엔진, 공장건물, 기계 같은 것들이지요. 미용실이라면 가위, 빗 같은 것들이 자본이 되겠지요. 또 위에서 말한 토지나 노동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도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나 기계, 건물, 토지, 재료 등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생산을 위해서는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생산요소가 결


합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잘 결합시키도록 관리해야 하지요. 이것을 경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토지, 노동, 자본에 경영을 더해서 '생산의 4요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노동, 경영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만 해요. 돈을 주지 않는데 공짜로 땅을 준다거나 일을 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또 기업이 크면 클수록 필요한 자본도 많을 테지요.



그런데 기업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기업에서 필요한 돈, 즉 자본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크게 사기업과 공기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기업은 개인이 자본을 제공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지요.

그리고 사기업은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냐에 따라서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뉘요.

개인기업은 한 사람이 자본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요. 또 대체로 회사의 주인과 사장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미용실, 문구점 같은 것들이 보통 개인기업에 속하는 것들이지요.

개인기업은 경우에 따라서 종업원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돈을 낸 사람, 즉 사장이 져야만 해요. 그러니까 개인기업의 사장은 장사가 잘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장사가 안 되면 손해를 볼 위험도 크답니다.

공동기업은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해요. 혼자서 돈을 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으면 더 큰 기업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동기업은 개인기업보다 규모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에요.

기업이 더 크면 벌어들이는 돈도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낸 사람이 많으니까 벌어들인 돈을 나눠 갖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되지요. 반대로 회사가 망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위험도 줄어들지요.

(주) ×× 기술그룹



우리나라에는 개인기업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업은 100개 중 80개 이상이 개인기업이래요. 하지만 개인기업들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이 적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모든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의 100분의 6정도라네요.

책을 좋아하는 저는 출판사에 다녀요.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기업
을 말하는데 가끔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기업을 운영하기도 해요.
이렇게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
이라고 해요.

공기업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돈을 모으더라도 충분한 돈을 다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국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한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고 수돗

물을 관리해 주는 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를 건설
하고 관리해 주는 한국도로공사 등이 공기업이지요.

만일 수돗물을 개인이 만든 회사에서 운영하고 관리한다면 그
회사의 주인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돗물을 비싸게 팔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처럼 깨끗하게 씻을 수도 없을 거예요.

또 도로를 만드는 회사를 개인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전국 곳곳을 여행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도로 회사의 사장이 자기
길이라고 못 가게 막거나 엄청 큰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공기업에겐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통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한편 기업은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오늘, 내 기분이 별로야.
그래서 도로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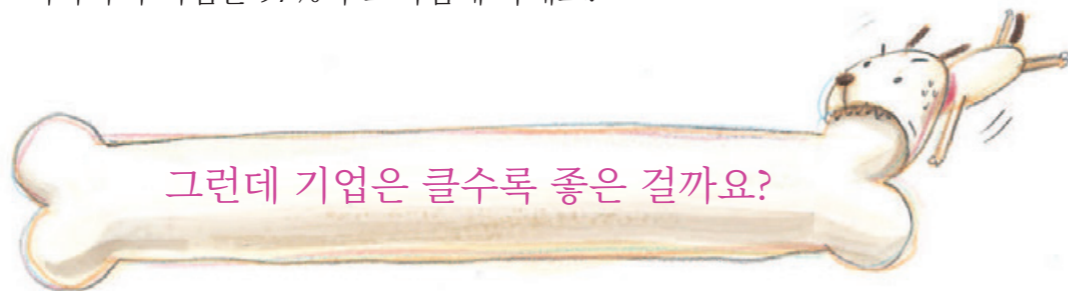


기업의 규모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 토지 등 가치있는 것들(자산)과 기업이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나눈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이 5천억을 넘고 법에서 정한 매출액 기준을 넘은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지요.

삼성전자, POSCO, 현대자동차, LG전자, 국민은행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중 0.1%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개 중에 1개만이 대기업이고 나머지 999개는 중소기업인 셈이지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작은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은 97%가 소기업에 속해요.



그런데 기업은 클수록 좋은 걸까요?

대기업은 무조건 좋고 소기업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대기업이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줄 다른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휴대 전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도 필요하고, 예쁜 배경화면을 만들어 주는 디자인 회사도 필요해요.


이렇게 아무리 크고 유명한 대기업이라도 작은 중소기업들의 도움이 없이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문방구나 식당 같은 기업은 매우 작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필요한 학용품을 살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사먹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좋고 나쁨을 그 기업의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요즘 일자리를 구하는 언니, 오빠들 중에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면서 대기업만 찾아다니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죠.

좋은 기업이란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알고, 좋은 품질의 것을 생산하며,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불쌍한 이웃을 위해 쓸 줄도 아는 기업입니다.

또 좋은 직장은 무조건 덩치만 큰 기업이 아니라,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곳이란 걸 명심하세요.



모든 기업이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나요?

“누나, 우리 돈 보태서 피자 사 먹자. 내가 4,000원을 내고 누나가 8,000원을 내고...”

12,000원짜리 피자가 먹고 싶었던 지호는 누나에게 돈을 보태자고 했지만 누나는 피자가 먹고 싶지 않다면서 거절했어요.

“그럼, 8,000원만 빌려줘.”

“싫어, 지호 너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형에게로 갔어요.

“형, 내가 4,000원을 내고 형이 8,000원 내서 피자 사 먹지 않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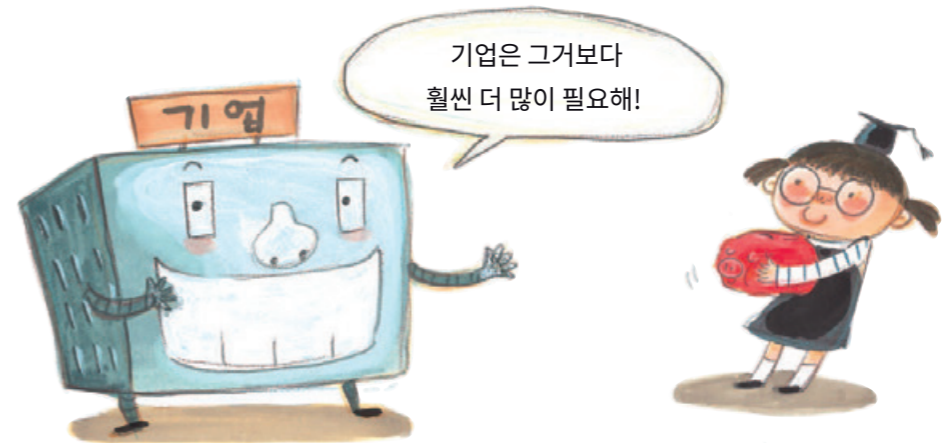
“좋아, 그럼 피자의 2/3는 내꺼다.”

형은 돈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지호는 ‘그럼 형이 4조각, 나는 2조각이네.’라고 생각하면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자 형이 “왜, 싫어? 내가 4,000원을 내고 내가 8,000원을 내니까 당연히 내 몫이 2/3가 되어야지” 라고 했고 지호는 어쩔 수 없이 “알았어. 그렇게 해.” 라고 했지요.

여러분들도 지호처럼 무언가가 먹고 싶거나 사고 싶은 것이 있지만 돈이 부족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부모님께 달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지호처럼 다른 사람과 돈을 보태거나 아니면 빌린 사람도 있을 테지요.

그런데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라면 돈이 모자랄 염려가 없을 테니까 어떻게 돈을 모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진 돈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동기업인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돈을 내기 때문에 개인 기업보다는 더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항상 충분할 수는 없어요. 국가가 경영하는 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돈도 더 많이 드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기업은 부족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족할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태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빌려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태어 달라는 것과 빌리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요? 잠시 앞에서 보았던 지호의 얘기로 돌아가보려고 해요. 지호는 먼저 누나에게 돈을 보태어 같이 피자를 사 먹자고 했어요. 하지만 누나

는 피자가 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돈을 보태지 않겠다고 했어요.

형은 어땠나요? 형은 돈을 보태고 피자를 같이 나눠 먹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돈을 보탠다는 것은 그 돈으로 얻게 되는 것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탠 사람끼리 나눌 때는 자신이 낸 돈의 비율만큼 나눠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지호가 4,000원/12,000원(=1/3)을 내고 형이 8,000원/12,000(=2/3)을 냈으니까 피자도 각각 1/3과 2/3로 나눠 먹기로 한 것처럼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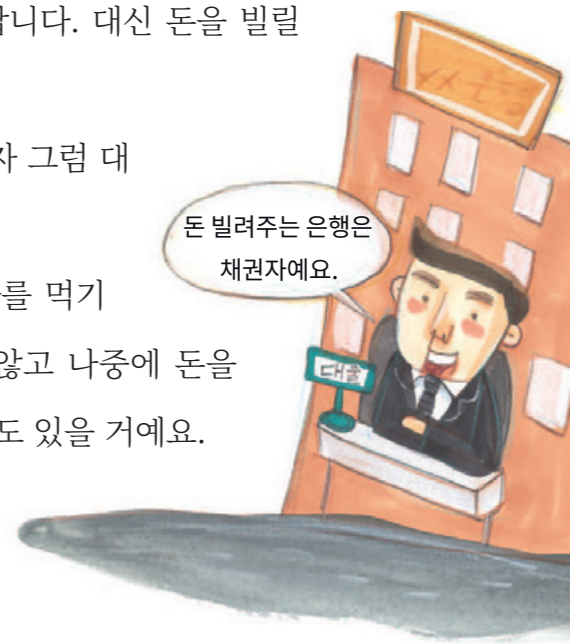
이제 빌린다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빌리고 빌려준다는 말은 보탠다는 말과는 달리 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없어요.

빌린 돈으로 무엇을 하든지, 또 그 돈으로 무엇을 얻게 되든지 돈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돈을 빌릴 때 한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호는 누나가 돈을 보태지 않겠다고 하자 그럼 대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피자를 싫어하는 누나는 먹기 싫은 피자를 먹기 위해 돈을 보태는 것보다는 피자를 먹지 않고 나중에 돈으로도 돌려받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나는 지호가 나중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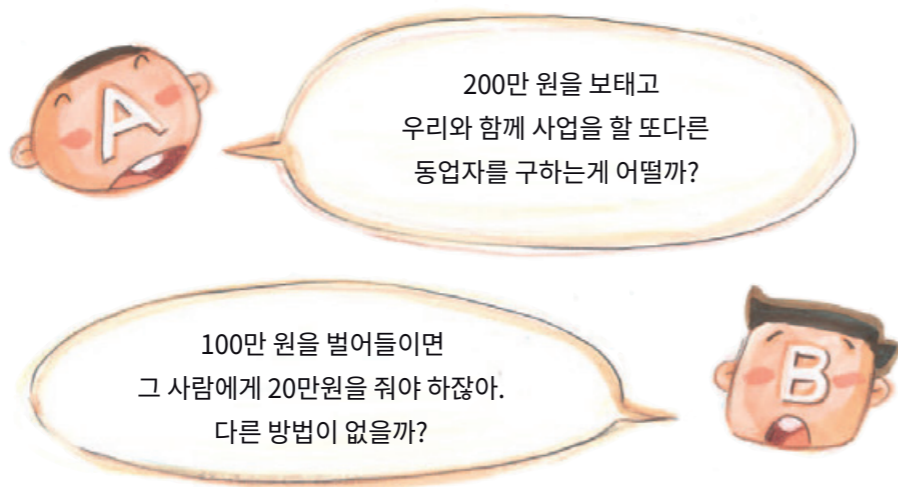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지요.

보태는 것과 빌리는 것의 차이가 이해되었나요?

그러면 돈을 보태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뜻하는 것을 좀 더 세련된 단어로 표현해볼게요. 돈을 보태서 같이 나누는 사람을 동업자라고 하고,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한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기업의 경우를 생각해 봐요.

1,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네 명의 동업자가 가진 돈을 모두 모아보니 8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나머지 2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싶나요?

만약에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이 많다고 생각되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거예요. 반대로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오히려 동업자를 구해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기업은 더 유리한 방법으로 부족한 돈을 마련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기업은 반드시 원하는 대로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기업에 돈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기업이 동업자를 원하더라도 지호 누나가 피자를 싫어해서 돈을 보태지 않은 것처럼 돈을 가진 사람이 그 기업과 연계 될 이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업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기업이 채권자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호 누나가 지호를 믿



지 못한 것처럼 채권자가 기업을 믿지 못하면 돈을 빌려 주려고 하지 않을 테지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에 유리한 방법으로, 원하는 대로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을 잘 이끌어야 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멋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을 잘 지킬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만 해요. 이러한 믿음을 신용이라고 하는데 신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용이 곧, 돈이다?
 신용이란 미래에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하고, 현재 무언가를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보통은 돈을 갚을 능력과 돈을 갚으려는 의지를 합쳐서 신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신용은 곧, 돈'이라고도 하지요. 신용이 좋으면 돈을 빌리기가 쉽지만 신용이 나쁘면 돈을 빌리기가 무척 어렵지요. 그래서 신용이 좋은 사람은 신용이 나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또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더 작답니다. 요즘에는 돈을 마구 빌려쓰고 갚지 않아서 신용이 매우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신용불량자라고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더 이상 돈을 빌려 쓸 수도 없게 된답니다.





즉, 제품 생산에는 토지, 노동, 자본 이 세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하고,

토지, 노동, 경영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지요.

선생님~ 그럼, 모든 기업이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이 많을거라고 예상되는 기업은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이윤이 적다면 동업자를 구해서 함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방법대로 반드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건 아니예요.

???

그건 자본을 가진 사람이 그 기업에 돈을 제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자는 언제든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직한 경영을 통해 신용을 쌓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용은 곧, 돈'이라고 한답니다.

친구들~ 이제 잘 알겠지요?

예~

신용이란 미래에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하고, 현재 무언가를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 주거래 은행을 한 곳 정해서 집중 거래한다.
- 은행 대출금은 제때 갚는다.
- 세금을 연체하지 말자.
- 무리한 대출을 삼가하자.
- 자신의 신용조회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즉, 신용이 좋으면 금융 거래 시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반대로 신용이 나쁘면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겠죠.

이렇게 작은 실천만으로도 좋은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 두세요.

주식과 채권이 뭐예요?

“오늘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코스피지수가 52.96 포인트 오른 2,873.47로 마감했습니다.”라는 방송이 TV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TV를 보고 계시던 아빠가 흐뭇해 하시자 엄마가 물었어요.

“우리가 투자한 주식도 값이 올랐나요?”

“그럼, 상당히 많이 올랐어.”

“호호, 그것 참 신나는 일이네요. 주식에 투자하길 잘 했네요.”

아빠와 엄마는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면 즐거워하셨어요.

하지만 주식이 무엇인지 몰랐던 지호는 주식이 무엇인지 궁금하

기만 했어요.

그럼,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주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회사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봐요.

첫째, 내가 가진 돈을 이용할 수 있어요.

둘째, 나의 신용을 이용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셋째, 같이 동업을 할 사람을 구해서 돈을 보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는 돈을 낸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증권이라는 것을 나눠준답니다.

증권은 각자가 회사에 얼마의 돈을 내었는지를 표시한 증서로 나중에 회사의 재산이나 이익 중에서 나눠가질 수 있는 몫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증권이 필요할까요?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눠 내는데 증권이란 게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가 1,000만 원을 내고, B와 C가 각각 3,000만 원과 6,000만 원을 내서 1억 원으로 회사를 만들어 동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얼마씩 돈을 냈는지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지요. 회사는 날로 번창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세 사람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을 나누기 위해 모였어요.

“300만 원을 벌었으니까 똑같이 100만 원씩 나눠 가지는 것이 어떨까?”

A가 말하자, C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싫어,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냈으니까 벌어들인 돈도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가야겠어.”

“C가 가장 많이 냈다는 증거가 있니? 아마도 내가 가장 많은 돈을 냈던 것 같은데.”

B는 자기가 가장 많이 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A도 자기가 가장 많은 돈을 냈다고 덩달아 거짓말을 했지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각자가 정확하게 얼마의 돈을 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 자신이 가장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야겠다고 옥신각신 싸움을 계속 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처음에 돈을 내면서 증권이라는 걸 나눠 가졌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각자가 갖고 있는 증권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증권에는 채권과 주식 등이 있어요.



채권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나눠주는 증권이고, 주식은 돈을 보태어 공동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 나눠주는 증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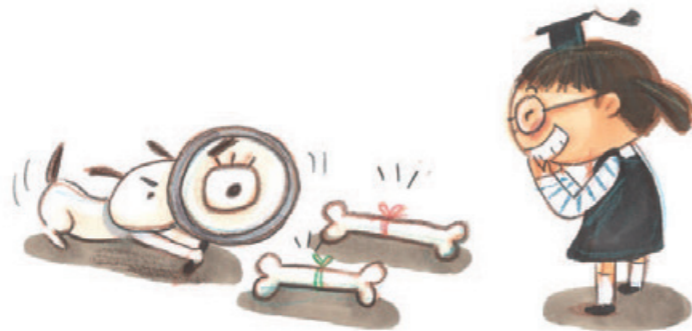
채권과 채권자

앞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했던 걸 기억하지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증거로 채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채권에는 빌려준 돈(원금)과 나중에 그 대가로 받게 되는 이익(이자), 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날짜(만기일)가 적혀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회사의 신용을 따져봐야 해요. 회사의 신용도가 낮으면 만기일에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해서 만기일까지 받는 이자를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한답니다. 즉,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채권의 이자가 높아져요.

둘째,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이다더라도 채권자는 빌려준 원금과 빌려줄 때 회사로부터 약속받은 이자 밖에는 받을 수가 없답니다.



주식과 주주

회사에 돈을 보탠 증거로 주식을 받은 사람을 주주라고 해요.

주주는 동업자와 비슷한 권리를 갖는답니다. 둘 다 회사의 공동 주인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회사의 주인은 회사가 잘 되면 이익이 많아져서 좋지만, 회사가 잘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동업자와 주주는 회사가 잘 될수록 유리해요.

그렇다고 주주와 동업자가 똑같은 것은 아니랍니다.

동업자는 각자가 낸 돈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서로의 약속에 의해 이익을 나눠 가져요. 돈은 있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과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간에도 동업을 하고 이익을 똑같이 나눠 가질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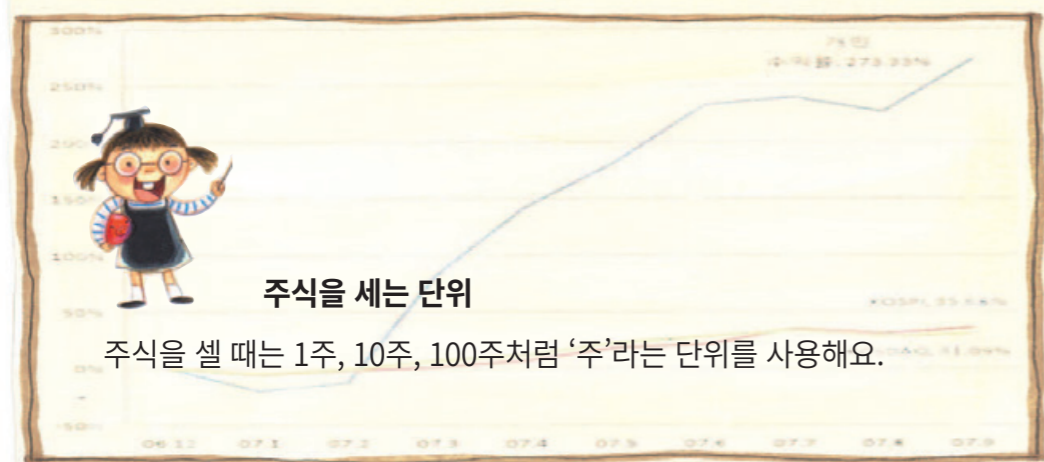
하지만 주주는 다르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배당은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받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한 어떤 회사가 1만 원짜리 주식 100주를 만들어서 돈을 보태 줄 주주를 모으고 있다고 가정해 봐요. 만약 누군가가 5만 원을 보탠다면 100주의 주식 중에서 5주를 받음으로써 이 회사의 5/100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10만 원을 낸 사람은 10주를 받고 회사의 10/100만큼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즉, 주주들은 주식의 총수 중에서 자신의 주식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약속받아요. 또 주주는 소유권이 클수록 배당도 많이 받아요. 만약 이 회사가 50만 원의 이익을 벌어들였다면 주식을 5주 가진 주주는 2만 5,000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주를 가진 사람은 회사의 재산과 이익에 대해서 5/100만큼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500,000\text{원} \times 5/100 = 25,000\text{원}$$



그 외에도 동업자와 주주의 차이는 또 있어요. 동업자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사에 낸 돈을 갑자기 되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식은 시장에서 사람들끼리 사고팔 수도 있기 때문에 주주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자기가 필요한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팔면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지요.

주식과 채권의 비교

구분	주식	채권
존속기간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해요.	만기일까지만 존재하지요.
소유자의 지위	주주	채권자
원금상환	회사는 주주에게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주가 곧 회사의 주인이니까요.	만기가 되면 회사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어야만 해요.
이익형태	회사의 이익이 많을수록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의 이익이 많은 적든 정해진 이자만 받아요.
경영참가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채권자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요.

어린이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나요?

지호는 뉴스를 보다가 주식에 대해 궁금해서 아빠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주식을 사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단다.”

“그럼, 과자회사의 주식을 사면 과자회사의 주인이 되고, 놀이동산의 주식을 사면 놀이동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그러자 지호는 심각했어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장난감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주식은 어른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도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증권회사에 가서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어린이가 증권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해요.

증권계좌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돈을 넣어두는 통장이예요.

증권계좌에 든 돈만큼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주식을 더 사고 싶으면 증권계좌에 돈을 더 넣으면 돼요.

또 주식을 샀다가 팔고 나면 다시 증권계좌로 돈이 들어온답니다.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언제든지 증권회사에 가서 찾아 쓸 수가 있어요.



투자할 회사를 선택해야 해요.

주식은 투자한 회사가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나면 주주에게 돌아오는 배당도 커지고 주식가격도 많이 오르지만, 회사가 잘못될 경우에는 투자한 돈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투자하기 전에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싹!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줄게요.
여러분은 친구들이 주로
어떤 회사의 과자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나요?
엄마 아빠는 장을 보러가시면
무엇을 잘 사오시는지 살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는지를 살펴보면 주식투자하기 좋은 회사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세계에서 주식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인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투자하기 좋은 회사를 고를 때 잘 아는 종목을 고르고 해요. 예를들면, ‘코카콜라’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코카콜라 회사의 주식을 산다거나, 아이들이 ‘월트디즈니’의 만화영화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월트디즈니’의 주식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부터 부모님을 따라 장을 보러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무얼 많이 사는지 잘 살펴보세요.

난 잘 아는 종목에만
투자한단다.



주식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주문서를 내야 해요.

종목을 골랐으면, 이제 주식을 주문해 볼까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주문서를 내야만 해요.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증권회사에 가서 주문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의 증권 앱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주식을 사고팔 때는 주식의 종목명과 수량, 거래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종목명이란 주식의 이름을 말해요. 주식의 이름은 보통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을 따릅니다.

종목코드는 각 주식마다 거래소에 등록된 번호를 말해요. 주민등록번호처럼 주식에도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주문종류는 주식을 살 것인지 팔 것인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사는 것을 매수라고 하고, 파는 것을 매도라고 해요. 만약에 주식을 사려고 주문을 하면서 매도라고 잘못 표시하면 큰 낭패를 볼 테니까 조심하세요.

거래수량은 몇 주를 살 것인지 혹은 팔 것인지를 표시해요.

가격은 사거나 팔기를 희망하는 가격을 말해요. 만약에 매수가격을 5,000원이라고 표시한다면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5,000원에

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보다 비싸면 사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매도가격을 5,000원으로 표시한다면 적어도 5,000원은 받아야지 팔겠다는 걸 뜻해요. 5,000원보다 싼 값에는 팔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 해서 모든 주문이 원하는대로 즉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제시한 조건에 만족하는 상대방이 나타나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진답니다.

만약 내가 1,000원에 사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팔려는 사람 중에서 1,000원 이하에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또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다음날이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거나 팔려고 주문했던 주식거래가 체결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주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주식은 어디에 있나요?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며칠 뒤에 집으로 배달이 되어 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산 주식은 집으로 배달되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직접 주식을 만지거나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산 주식인데 왜 내가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예전에 회사가 작아서 주식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을 때는 주식을 산 사람이 직접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주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부터는 주식을 산 사람에게 직접 주식을 나눠주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대신 보관하고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보유한 주

식을 기록해 준답니다.

사고파는 사람들 사이에 주식이 왔다갔다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지요.

또 주식을 사서 잠깐 동안만 갖고 있다가 바로 되팔아버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주식을 직접 주고받게 되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주식이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릴 일도 더 많아질거고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런 위험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모든 주식을 대신 보관하고 있으면서 누가 샀다가 팔았는지 그래서 지금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록해 둔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샀는데도 주식이 배달되어 오지 않는다고 불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주식왕 워렌버핏

워렌 버핏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증권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통할 만큼 주식투자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인물이에요. 버핏 할아버지가 증권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이유는 1956년 26세 때 주식에 투자한 돈은 단돈 100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92억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약 83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굴리는 세계 최고의 주식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핏 할아버지는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돈이 많은 갑부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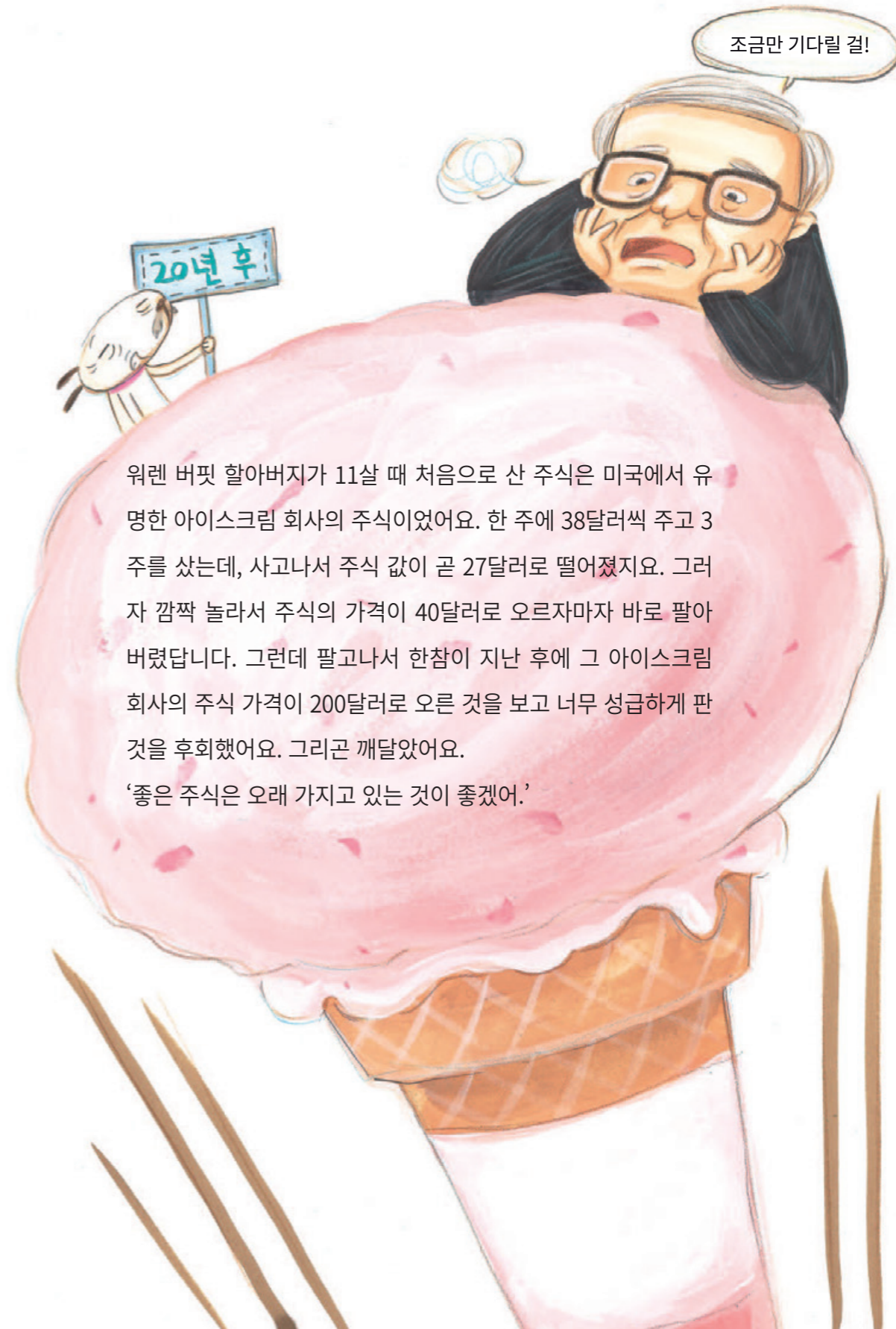
그가 주식투자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경제와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버핏 할아버지는 8살 때부터 주식에 관한 책을 읽었고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또 주식 거래 중개인이었던 아버지를 도와 주식의 가격을 기록하고 주식과 채권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돕기도 했고,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는 것도 좋아했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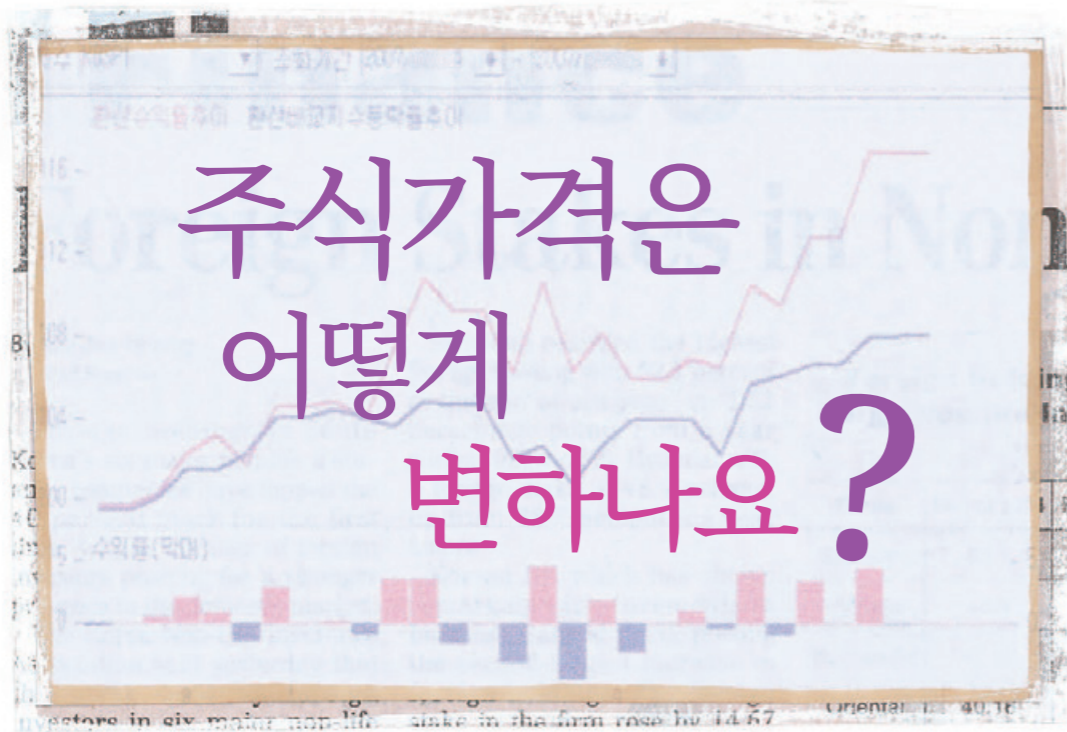
Buffett's Tips for Individual Investors

1. "Look at stocks as parts of businesses. Ask yourself, 'How would I feel if the Stock Exchange was closing tomorrow for the next three years?' If I am happy owning the stock under that circumstance, I am happy with the business. That frame of mind is important to investing."
2. "The market is there to serve you and not to instruct you. It is not telling you whether you are right or wrong. The business results will determine that. I stole that one from [famed value investor] Ben Graham."
3. "You can't precisely know what a stock is worth, so leave yourself a margin of safety. Only go into things where you could be wrong to some extent and come out OK."
4. "Borrowed money is the most common way that smart guys go broke."
5. "The stock doesn't know you own it. You have feelings about it, but it has no feelings about you. The stock doesn't know what you paid. People shouldn't get emotionally involved with their stocks."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11살 때 처음으로 산 주식은 미국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의 주식이었어요. 한 주에 38달러씩 주고 3주를 샀는데, 사고나서 주식 값이 곧 27달러로 떨어졌지요. 그러자 깜짝 놀라서 주식의 가격이 40달러로 오르자마자 바로 팔아버렸답니다. 그런데 팔고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그 아이스크림 회사의 주식 가격이 200달러로 오른 것을 보고 너무 성급하게 판 것을 후회했어요. 그리곤 깨달았어요.

‘좋은 주식은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어.’



“야호! 아빠, 이제 나도 XX제과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지호를 XX제과 꼬마 주인님이라고 불러야겠는걸.”

지호는 오늘 아빠를 따라 증권회사에 다녀왔어요. 그동안 모아둔 용돈으로 주식을 사기 위해서지요. 지호는 평소에 즐겨 먹던 과자를 생산하는 XX제과의 주식을 샀어요.

XX제과의 주식은 총 140만 주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XX제과의 주식은 1주에 10만 원이나 해서 지호가 가진 돈으로는 1주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호는 XX제과의 140만분의 1을 가진 셈이지요.

“지호야, 앞으로 네가 산 XX제과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해. 주가가 오르면 너도 이익을 보겠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단다.”

“알겠어요, 아빠.”

지호는 주가가 많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밤마다 자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르라고 주문을 외울 거예요. XX제과의 주가야 올라라. 압!”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것을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해요.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산 주식회사의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지요. 이걸 배당이라고 하고, 이때 주주들이 받게 되는 돈을 ‘배당금’이라고 해요. 회사가 경영을 잘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많아질수록 주주가 받게 되는 배당금도 많아지게 되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산 주식의 가격이 오를 때랍니다. 10만 원을 주고 산 주식을 나중에 15만 원이 되어서 팔면 5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왜 회사마다 주가가 다른가요?

그런데 왜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서로 주가가 다를까요? 회사마다 주가가 다른 것은 바로 기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가치란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예를 들어서 두 회사의 주가가 똑같이 만 원인데 한 회사는 500원을 배당금으로 주고, 또 다른 회사는 700원을 배당금으로 준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700원을 주는 회사의 주식만 살 거예요. 두 회사의 주식이 모두 골고루 잘 팔리려면 500원을 배당으로 주는 회사의 주식 가격은 700원을 배당금으로 주는 회사의 주식 가격보다 싸야만 하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같다면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의 주가가 배당금을 적게 주는 회사의 주가보다 높답니다.

주가는 왜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배당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도 하루에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가격이 변한답니다.

회사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주가는 계속 바뀌는 걸까요? 회사의 가치가 영업사정이나 전망에 따라 매일 바뀌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XX제과에서 만든 과자가 잘 팔려서 기업의 가치가 높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과자를 사먹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과자를 더 많이 사먹게 되면 XX제과의 가치는 떨어지지요. 그럼 XX제과의 주가도 함께 떨어질 거예요.

또 주가는 회사의 가치가 바뀌지 않더라도 바뀔 수 있어요.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주식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할 수도 있답니다.

주식시장이란 사람들이 언제든지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소문이 난다면 실제로 회사의 가

치가 바뀌지 않더라도 주가는 오른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회사가 잘 되지 않을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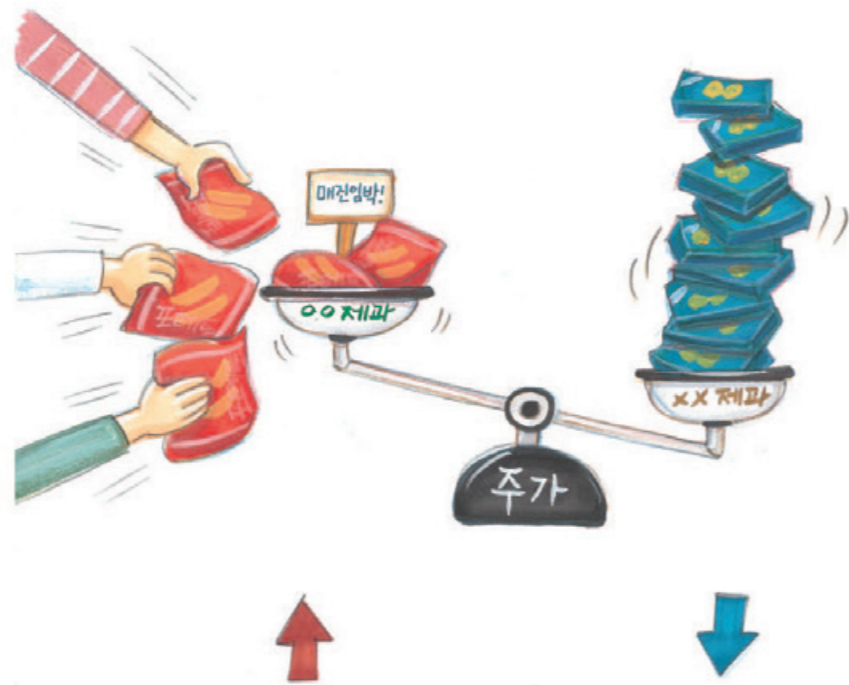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런 나쁜 소문이 돌면 주가는 떨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도 더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지만 주가는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앞으로 어떤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지도 알아봐야 하고, 똑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언제 사야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황소시장과 곰시장

한국거래소에 가면 황소와 곰이 싸우고 있는 모습의 동상이 있어요.

황소와 곰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황소는 싸울 때 뿔을 위로 치받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에 비유하고요,

곰은 싸울 때 주먹을 내리찍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비유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시장은 황소시장(bull market)이라고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시장은 곰시장(bear market)이라고 하지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거나 팔겠다고 주문을 하면 한국거래소는 그 주문들을 받아서 서로 조건이 맞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체결해 준답니다.

그런데 모든 주식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거래소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합격한 주식회사의 주식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금방 망할 회사의 주식을 팔고 도망가 버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산 사람들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은 세 가지로 나뉘지는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시장이 있어요.

유가증권시장에는 주로 기업의 역사가 오래되고, 잘 알려져있는 큰 기업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큰 기업들이 유가증권시장에 있지요.

코스닥시장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로 있어요. 처음엔 코스닥시장에 있다가 기업이 점점 커져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간 카카오 같은 회사도 있답니다.

또 코넥스시장에는 코스닥시장보다 더 규모가 작은 신생기업들이 있답니다.



BTS가 소속된 (주)빅히트의 상장기념식

3 시세표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아빠, XX제과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은데 무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호는 XX제과의 주식을 산 이후로 주가가 오르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했지만 주식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호야, 신문이나 TV를 보면 주가가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시세표가 나온단다. 그걸 살펴보면 돼.”

“시세표요?”

지호는 아빠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문을 펼쳤어요.

신문을 한장한장 넘기다가 ‘주식시세표’라고 적힌 면을 발견했지요.

그런데 거기엔 도무지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가득했어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핑글핑글 돌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시세표를 본 적이 있나요?

시세표를 본다는 건 정말 골치가 아픈 일일까요? 아니에요.

보물지도의 비밀들이 몇 가지 암호만 알면 술술 풀리듯이 시세표는 몇 가지 약속된 부호와 표시들만 알면 아주 쉽게 주식의 가격과 움직임을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시세표라는 보물 지도를 펼치고 그 속에 담긴 주식정보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시세표 제일 위쪽에 코스피지수 2,873.47이라고 큰 숫자가 쓰여 있어요.

코스피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가지수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나타낼 때에는 포인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위의 시세표를 보면 코스피지수는 어제보다 52.96포인트 올랐네요!

무엇이든 오르고 내린 것을 평가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듯이 코스피지수도 기준이 있어요.

코스피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주가를 100이라고 가정해서 현재의 평균 주가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지수가 2,873.47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이 1980년 1월 4일에 비해 평균적으로 29배 정도가 올랐다는 걸 말해요.

만약 1980년 1월 4일에 2,000원짜리 주식을 사 두었더라면, 지금은 대략 58,000원이 되었을 거란 말이지요.

코스피지수 아래에 ▲52.96P라고 적힌 것은 코스피지수가 어제에 비해 52.96포인트 올랐다는 뜻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코스피지수 말고도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지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지수, KRX100지수, 코스닥지수 등이 있어요.

코스피200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 중에서 특별히 거래가 활발하고 규모가 큰 200개 회사의 주식만을 뽑아서 만든 거예요. 이 지수는 1990년 1월 3일의 주가를 100으로 해서 계산한 값이에요.

유가증권시장에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 지수가 있듯이 코스닥시장에서도 시장상황을 보여주는 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코스닥 (KOSDAQ)지수랍니다.

코스닥지수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 KRX100지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서 대표되는 100개의 종목을 모아서 만든 통합지수입니다.

이제 개별 주식의 가격정보에 대한 암호를 풀어보기로 해요.

개별 종목의 이름들이 보이고 그 오른쪽에는 여러 개의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하루 동안 주식에 대해 증가, 전일비, 거래량이 표시돼요.

증가는 주식시장이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되었던 가격을 말해요. 그리고 전일비란 어제보다 가격이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거래량이란 종목이 하루동안 거래가 된 주식의 수를 말해요.

가로 줄 사이에 '통신'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업종이란 일의 종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세표에 '통신'

이라고 써어 있으므로 그 아래 종목란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통신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라는 것이죠.

'SK텔레콤' 주식의 증가가 23만 8천원이라는 것은 'SK텔레콤'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판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거래를 한 사람들은 23만 8천원에 사고 팔았다는 뜻이에요. 또, 'SK텔레콤' 회사의 주식은 하루 동안 총 31만 7천주를 사고팔았네요.

증가 옆에 붙어있는 삼각형 기호와 숫자는 주가가 어제의 증가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내렸는지를 알려주는 거랍니다.

빨간색(검은색)의 위로 향한 삼각형(▲)은 어제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표시이고요, 파란색(하얀색)의 아래로 향한 삼각형(▽)은 어제보다 오히려 가격이 내렸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오른 종목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오른 경우에는 빨간색(검은색) 삼각형 대신 빨간색(검은색) 화살표(↑)로 나타내고요, 반대로 특별히 많이 내린 종목은 파란색(하얀색) 삼각형 대신 파란색(하얀색) 화살표





(↓)로 표시한답니다. 하지만 어제 종가와 비교해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경우에는 -으로 표시하지요. ‘SK텔레콤’은 어제 종가보다 1,500원이 올랐나 봐요. ▲15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밖에도 종가 앞에는 ★(투자유의), ●(배당락), ○(권리락)같은 여러 가지 부호가 붙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런 부호들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들이에요. 한꺼번에 보물지도의 비밀을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어질 테니까 나중에 차츰차츰 풀어가도록 남겨두기로 해요.

여기서는 ★(투자유의) 하나만 살짝 알려줄게요.

투자 유의 종목은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한 종목을 말해요.

그러니까 ★(투자유의) 표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정상으로 볼 수 없는 이상한 종목이니까 주의하라’는 뜻이지요.

투자유의 종목으로 되어서도 계속 주가가 상승할 때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되고, 거기서 더 오르면 투자위험종목이 된답니다.

어때요? 이제는 시세표가 겁나지 않겠지요?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시세표 보러 갑니다. 휘리릭~



주식투자는 위험하다던데?

“우훗, 이러다가 금방 부자되겠는 걸. 히히히.”

지호가 아침부터 뭐가 그리도 좋은지 혼자서 싱글벙글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용이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지호야, 너 오늘 무슨 신나는 일 있는 거야?”

“사실은 며칠 전부터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벌써 2,000원이
나 올랐지 뭐야.”

얼마전 지호가 샀던 XX제과의 주가가 올라서 신이 난 지호가
흥분하며 자랑을 했어요.

“뭐? 주식이라고?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주식투자는 위험한 거

랬어.”

용이 아빠는 몇 해 전 주식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 용이네 부모님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으신대요.

용이에게도 주식은 위험한 거니까 아예 관심을 갖지 말라고도 하셨지요.

“그러니까 지호 너도 빨리 주식을 팔아버리는 게 좋을 거야.”

“그래?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올라서 좋기만 한데...”

주식투자는 정말 위험한 걸까요?

주식이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주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주식시장이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지요.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주가가 똑 떨어져 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있지만, 쫓딱 망해서 빚을 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위험이라는 것이 주식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험을 잘 관리하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위험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투자에서 '위험하다' 혹은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위험이 손해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000원에 산 주식이 6,000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7,000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기대보다도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지만 이것도 역시 위험에 속한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6,000원과는 다르기 때문이지요.

결국 위험은 투자하고 나서 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대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험이 크면 기대에 못 미치는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로 기대 이상의 이익을 볼 가능성도 높아진답니다.



하이 리스크(high risk)-하이 리턴(high return)

위험이 크면 수익률도 높다는 말이에요.

서로 다른 위험을 가진 두 가지 투자안을 예로 들어 볼까요?

투자안 1. 지금 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무조건 500원을 벌 수 있음.

투자안 2. 지금 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뒤에 평균적으로 1,000원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잘 되었을 경우에는 3,000원을 벌 수 있고, 반대로 잘못 될 경우에는 오히려 1,000원을 잃을 수도 있음.

위에서 투자안 1은 위험이 없는 경우의 예이고 투자안 2는 위험이 있는 경우의 예입니다. 투자안 2는 경우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잘 되면 투자안 1보다도 6배나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위험이 높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률이 낮더라도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위험이 없는 투자안 1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위험하더라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있는 투자안 2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위험

테지요.

사람마다 위험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투자하기 전에 그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남들이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나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공부도 하지 않고 무작정 주식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런데 주식투자를 할 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지요. 한 가지 주식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식에 골고루 나누어서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여러 주식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분산투자’라고도 하고, ‘포트폴리오투자’라고도 해요.



그런데 분산투자를 한다고 어떻게 주식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주식마다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주식의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채 장수와 우산 장수처럼 말이죠.

옛날에 부채 장수와 우산 장수가 있었어요.

부채 장수는 비가 오는 날이면 부채가 팔리지 않아 슬퍼했어요. 그런데 우산 장수는 비가 오는 날이면 무척 신이 났어요. 우산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가 쨍쨍한 더운 날은 반대였지요. 부채 장수는 장사가 잘 돼서 좋았지만 우산 장수는 우산이 팔리지 않아 우울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장사꾼이 우산과 부채를 모두 팔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팔아서 좋고, 더운 날은 부채를 팔면 되니까 우울해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한 가지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주식에서 가격이 올라 손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투자와 관련된 속담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분산투자’의 필요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100개 가득 담아두었다가 그 바구니를 떨어뜨린다면 100개의 계란이 몽땅 다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란을 20개씩 5개의 바구니에 나누어서 담아 놓았더라면 바구니 하나를 떨어뜨리더라도 100개의 계란이 몽땅 다 깨져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증권



주식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반대로 팔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란다.

아빠, 이건 뭐예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많은데.

그건 '주식시세표'란 거란다.

주식시세표요?

그래. 주식시세표란 상장회사들의 주식의 가격과 움직임을 도표와 약속된 부호를 통해 알려주는 거야.

시세표에 코스피지수, 코스피200지수, KRX100지수, 코스닥지수 등이 섞여 있는데,

참고로 코스피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거란다.

그리고 지수가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말할 때는 포인트라는 단위를 사용해 가령 '22포인트 올랐다'처럼 말아야 또 한 가지 주식투자는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즉, 사고 싶은 주식(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자기 능력내에 안전한 자금으로 한 곳보다는 몇 군데 나눠서 분산투자를 하는 등, 자기관리를 잘한다면 얼마든지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거지.

그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안했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 밖의 과도한 투자 등, 자기 컨트롤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다.

예, 그렇군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용돈을 모아 주식투자를 해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처럼 어린이들이 주식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예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저축은 왜 하나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꺼내 지출하는 것을 ‘소비’라고 하고, 소비하지 않은 일부를 모아 두는 것을 ‘저축’이라고 해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는 왜 원하는 것을 당장 사지 않고 저축을 할까요?

저축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거나,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나서 집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축해 둔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새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야 할지도 몰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또 저축은 지금 가진 돈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매일 용돈을 500원씩 모으면 10일 뒤에는 5,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어요. 100일이면 5만 원짜리 물건도 살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저축을 하면 좋은 점들이 많답니다.



저축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저축을 많이 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축을 하면 좋은 점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게임기를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돈을 조금씩 저축해서 게임기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였다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사면 되겠죠. 저축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돈이 많이 드는 물건을 구입할 때 좋습니다.

형이나 누나가 대학교를 가야하는데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이에요. 이럴 때 저축한 돈이 있으면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갈 수 있겠죠?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저축해 둔 돈이 있으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생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비가 없다면 팔을 다친 채로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저축을 해두었다면 이 돈을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돈을 벌지 못할 때를 대비해 저축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해두면 은행은 기업에

게 우리가 저축해 둔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기업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돈을 은행에 맡길까요?

첫째, 은행에 맡기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둘째, 낭비하는 일도 막을 수가 있지요.

셋째,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자가 붙어서 돈이 더 많아져요.

넷째, 저축한 돈은 기업의 자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요.



무조건 쓰지 않고 저축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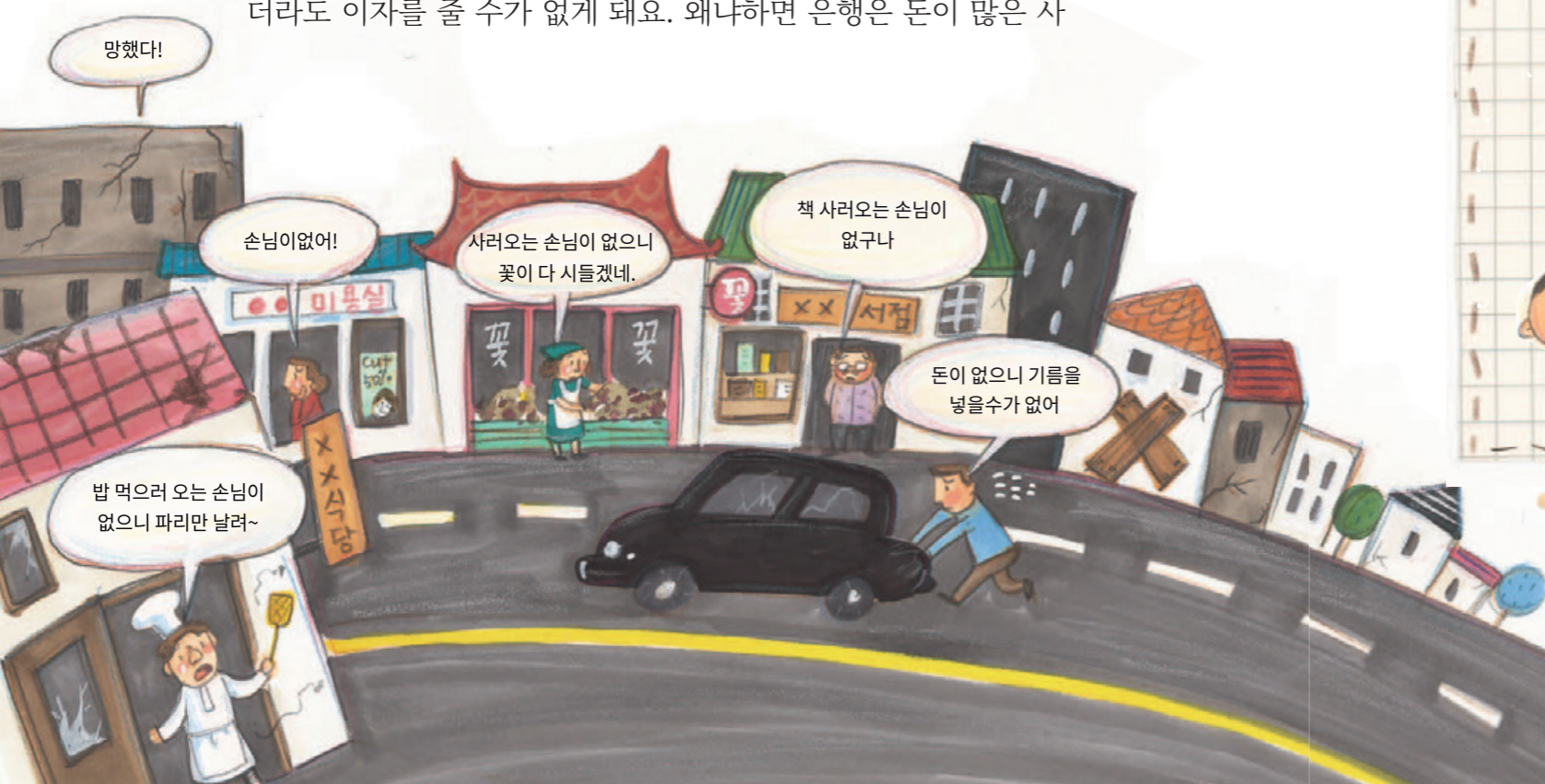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좋은 일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번 돈을 몽땅 저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전해지면서 세상 곳곳을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만일 모든 사람이 벌어들인 돈을 쓰지 않고 몽땅 저축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모두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도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또 회사가 망해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행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줄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은행은 돈이 많은 사



은행은 무슨 돈으로 이자를 줄까요?

은행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금과 대출업무이지요.

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대출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해요.

은행은 이러한 예금과 대출에 서로 다른 이자를 주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로부터 받는 대출이자보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에게 주는 예금이자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은행은 그 차이만큼 돈을 벌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6만 원의 이자를 받고, 100만 원을 맡긴 사람에게는 5만 원의 이자를 준다면 은행은 6만 원-5만 원=1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셈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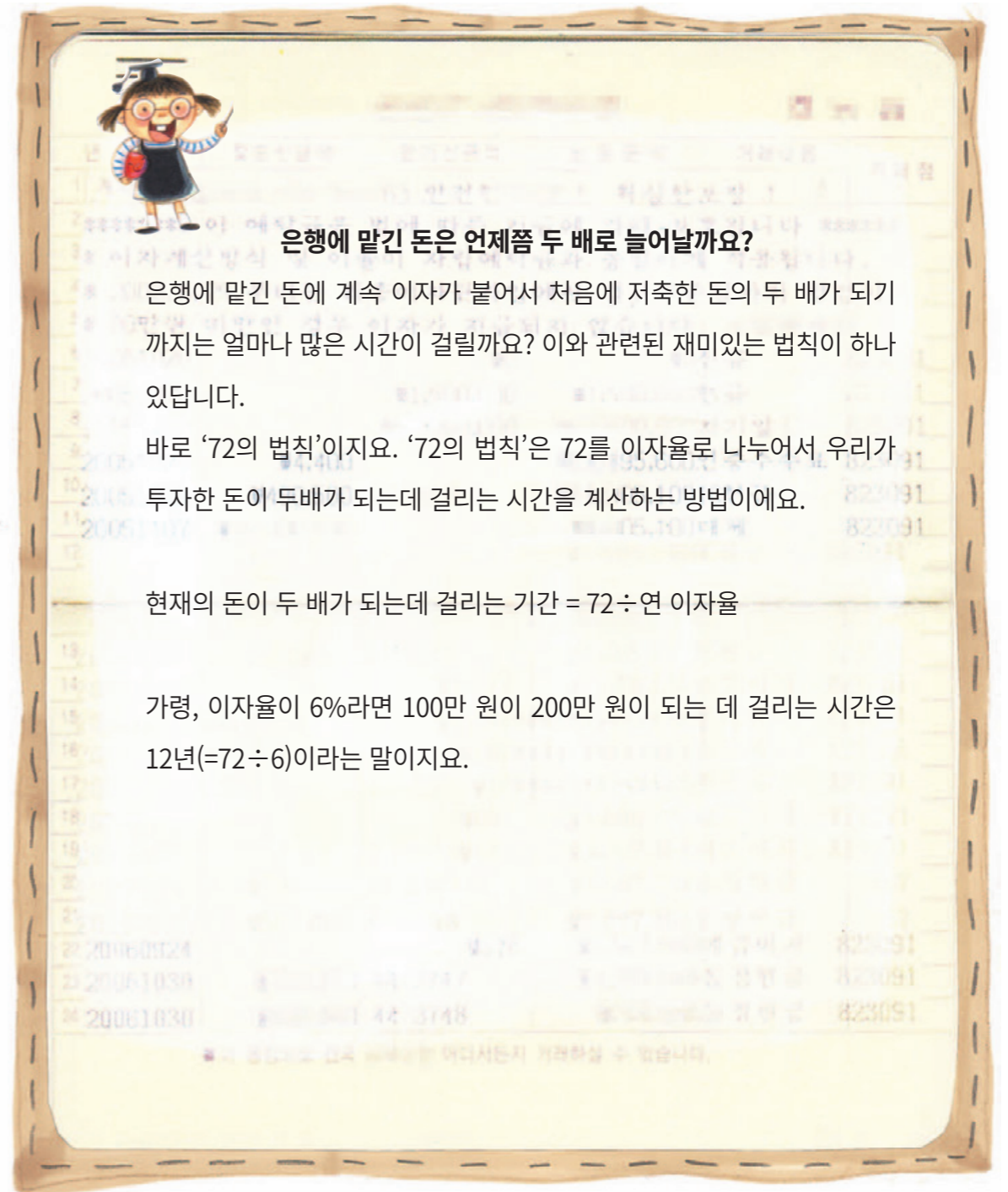


람으로부터 돈을 저축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이자를 받고 그 받은 대출이자 중에 일부를 저축한 사람들에게 예금이자로 나눠주는데,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면 예금이자를 줄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저축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소비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피가 몸속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듯이,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열심히 해주어야만 해요.

벌어들인 돈 중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소비해야 할지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모두 달라요. 중요한 건 불필요한 소비를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 수준에 맞게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기업투자 등등.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투자'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한다고도 하시지요.

'투자'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투자'란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당장 쓰지 않고 나중에 미

루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나중에 미루는 이유는 미래에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지요.

다시 말해서, 투자는 현재의 소비를 참고 미루는 대신 미래에 더 큰 이득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이득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이득이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은 것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큰 이득을 기대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대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지요?

결국 투자는 확실한 현재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갖고 있어요.



이제 투자와 비슷한 말로 자주 쓰는 ‘저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해요.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참고 미래를 위해 아껴두는 것을 말해요. 어라, 그럼 저축은 투자와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저축도 현재 쓰고 싶은 것을 나중에 미룬다는 점에서는 투자와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저축은 미래에 큰 이득을 바라는 것은 아니랍니다. 저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쓸 것을 참고 아낀다는 것이지요.

용돈을 아껴서 돼지저금통에 모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책상 서랍이나 책 속에 끼워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써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경우도 모두 저축에는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가진 돈을 당장 쓰지 않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꺼내어 쓰는 것이 저축이기 때문에 저축은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다고 했어요. 저축은 위험이 없으니까 미래에 이득도 손해도 생기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저축 중에서도 미래에 약간의 이득이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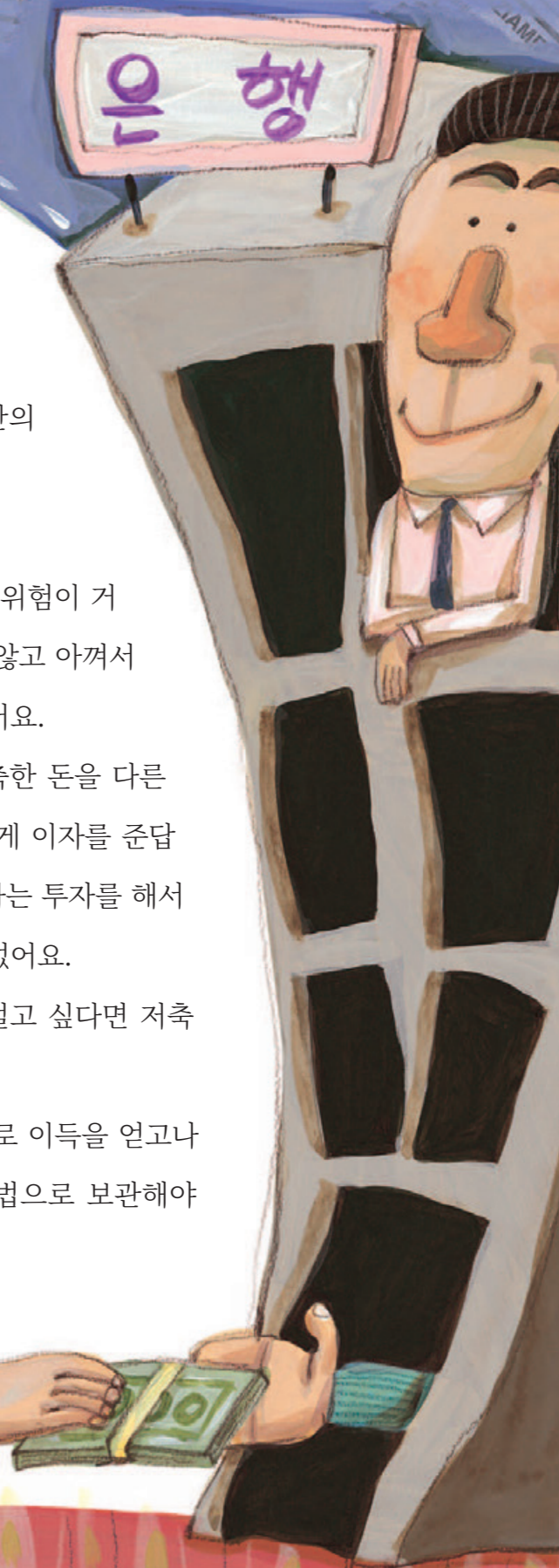
그건 바로 은행예금이지요.

은행예금은 저축의 방법 중 하나로 위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지 않고 아껴서 저축한 돈, 즉 원금을 까먹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은행은 내가 쓰지 않고 저축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대가로 나에게 이자를 준답니다. 그래도 예금으로 받게 되는 이자는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이득보다 항상 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저축해서 모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요.

물론 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로 이득을 얻고나면 일부를 다시 예금처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선 안 돼요.



투자	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이득을 기대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적극적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자금을 한 곳에 쌓아두는 소극적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을 날릴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이 보존됨

그런데 혹시 뉴스에서 ‘투기를 막아야 한다’면서 투기를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투기와 투자. 비슷한 말 같은데 사람들은 왜 투기를 나쁜 거라고 할까요?

‘투기’란 미래에 큰 이득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투자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투기는 투자처럼 미래 이득을 위해서 현재 하고 싶은 것을 오래 참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요.

투자는 적어도 몇 달에서 몇 년은 참고 기다려서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투기는 며칠 만에, 심지어 몇 시간, 몇 분 만에 큰 이득이 생길 기기를 바라는 것이랍니다.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은 정보를 모아서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지만, 투기를



를 하는 사람은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한탕으로 떼돈을 벌고 말거야’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지요.

투기는 기회를 노려 한 순간에 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지요.

물론 위험한 만큼 운이 좋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되면 쏙딱 망해서 ‘쪽박’을 칠 수도 있다는 거, 이젠 말 안 해도 알겠죠?

게다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큰돈을 벌기 위해서 비정상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투기꾼’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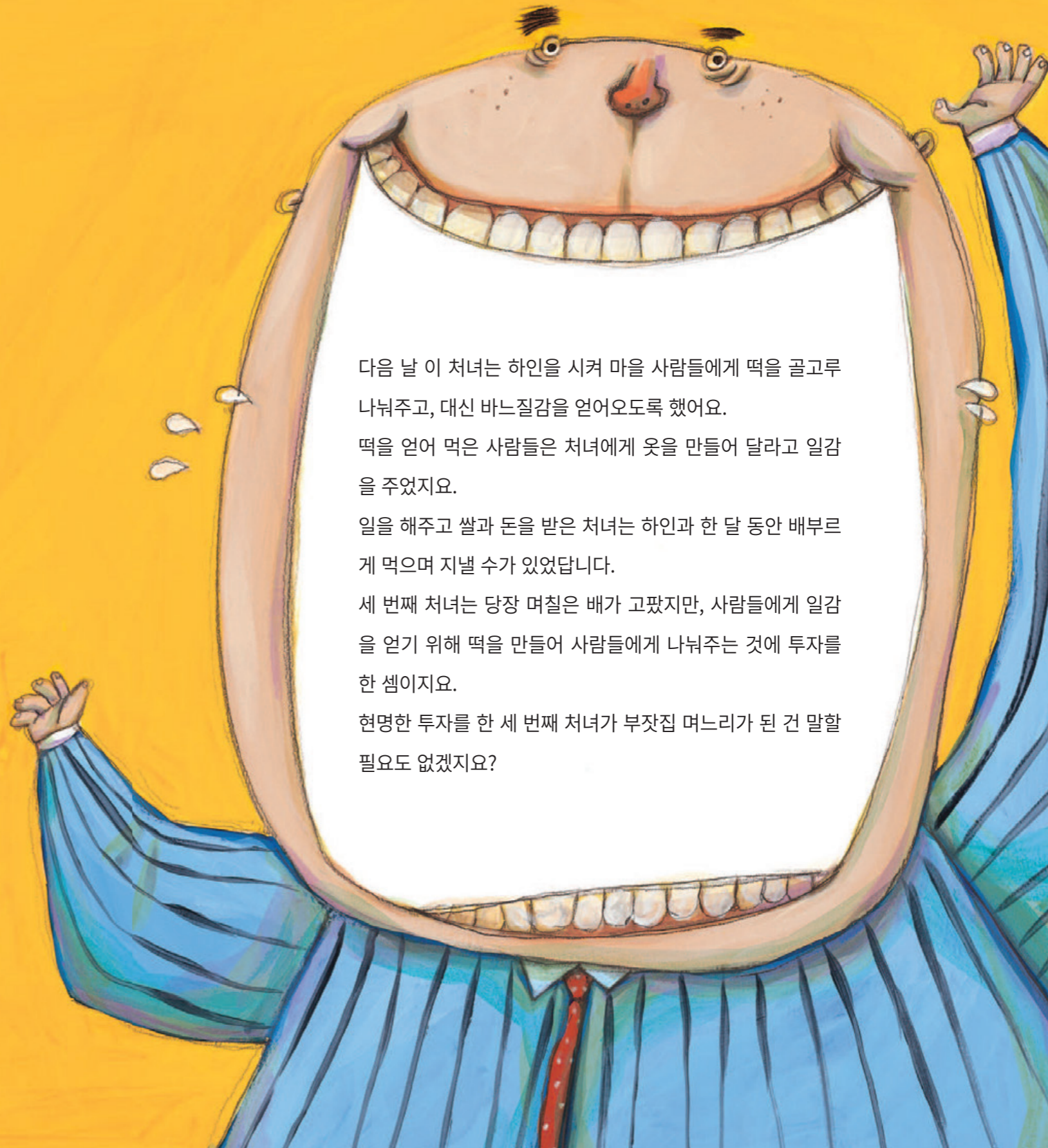
이렇게 나쁜 투기꾼들을 그냥 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때문에 정부에서도 투기꾼을 없애기 위해 단속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답니다.





현명한 투자를 한 며느리

옛날에 어머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아들이 장가 갈 나이가 되자, 며느리 선발대회를 열었어요.
많은 처녀들이 부잣집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했지요.
부자는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인 1명을 데리고 오되, 쌀 한 말로 한 달을 지내는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겠다.”
쌀 한 말은 하인과 처녀, 두 사람이 한 달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며느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고, 세 명의 처녀만이 이 시험에 지원을 했어요.
첫 번째 처녀는 최대한 아껴서 먹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처녀는 열흘밖에 버티지 못하고 기권을 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처녀는 쌀로 죽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자 쌀이 푹 떨어져 버렸답니다.
세 번째 처녀는 아껴 먹기는커녕 첫째 날에 쌀을 몽땅 떡으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저 처녀는 닳새도 못 버티겠구먼.”하고 세 번째 처녀를 비웃었어요.



다음 날 이 처녀는 하인을 시켜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골고루 나눠주고, 대신 바느질감을 얻어오도록 했어요.
떡을 얻어 먹은 사람들은 처녀에게 옷을 만들어 달라고 일감을 주었지요.
일을 해주고 쌀과 돈을 받은 처녀는 하인과 한 달 동안 배부르게 먹으며 지낼 수가 있었답니다.
세 번째 처녀는 당장 며칠은 배가 고팠지만, 사람들에게 일감을 얻기 위해 떡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투자를 한 셈이지요.
현명한 투자를 한 세 번째 처녀가 부잣집 며느리가 된 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용돈을 받아서 돼지 저금통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써본 적이 있나요? 보통예금은 꼭 돼지저금통 같답니다.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금할 수도 있고 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찾아서 쓰면 된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돼지저금통은 돈을 넣어 둔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생겨나지는 않지만 은행에 가서 보통예금통장에 돈을 넣어 두면 돈에 이자가 붙어서 더 많아지지요. 물론 통장에 넣어둔 돈이 너무 적으면 이자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자는 넣어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 거랍니다.

투자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있어야 해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 좋아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저축을 해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통장에 넣을 수 있는 보통예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저축할 기간,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찾을 날짜를 미리 정해 놓고 매달 똑같은 돈을 저축하는 정기적금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해 놓은 날을 만기일이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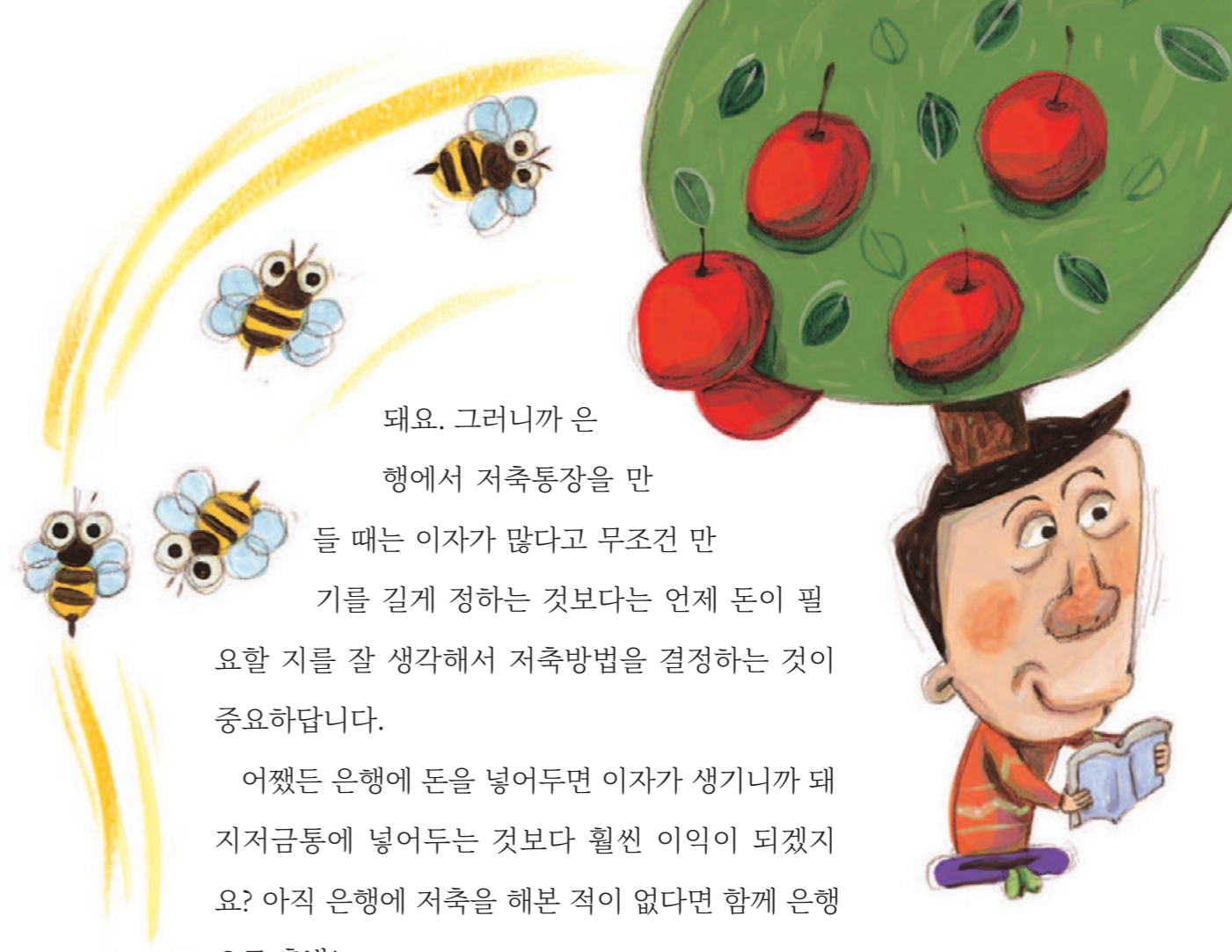
정기적금은 만기일이 될 때까지 매달 돈을 저축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아껴쓸 수밖에 없답니다. 어떤 친구들은 용돈 받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가 용돈을 받으면 사고 싶었던 걸 다 사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만일 이런 친구가 정기적금에 투자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자꾸 쓰고 싶어지

는 것은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꼭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돈이 될 때까지 참고 아껴야지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게 되지요. 정기적금은 1년 뒤나 2년 뒤처럼 돈을 찾을 수 있는 날을 정해두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다고 언제든지 찾아 쓸 수가 없어요. 정해둔 날이 지나면 내가 매달 저축했던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자도 함께 말이지요. 정기적금의 이자는 보통 예금의 이자보다도 더 많답니다. 사고 싶은 것을 사지 않고 오랫동안 잘 참았으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 큰 돈을 한꺼번에 은행에 맡겨두고 나중에 약속한 날에 돈을 찾는 방법인데 이것은 정기에금이라고 해요.

정기에금이 돈을 찾을 수 있는 날, 즉 만기일을 미리 정해두는 점에서는 정기적금과 비슷하지요. 하지만 매달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한 번만 돈을 넣는다는 점이 정기적금과 다르답니다. 정기에금도 정기적금처럼 만기일까지 돈을 찾아 쓰지 않고 참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예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기적금이나 정기에금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약속한 날이 되기도 전에 돈을 찾게 되면 처음에 통장을 만들 때 약속한 이자보다 훨씬 적은 이자밖에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저축통장을 만들 때는 이자가 많다고 무조건 만기를 길게 정하는 것보다는 언제 돈이 필요할 지를 잘 생각해서 저축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어쨌든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생기니까 돼지저금통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되겠지요? 아직 은행에 저축을 해본 적이 없다면 함께 은행으로 출발!

은행에 저축을 하려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어야 해요.

통장을 만들려면 부모님과 함께 가거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야만 해요. 또 나무나 예쁜 돌 등에 자기 이름을 새긴 도장도 가져가야 해요. 은행에서

는 통장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그 통장의 주인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통장의 제일 첫 장에 내 도장을 찍어 준답니다. 내 도장이 찍힌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돈은 엄마의 것도, 아빠의 것도, 형이나 동생의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 것이랍니다.

내 통장이니까 거기에 돈을 저축해야 하는 사람도 바로 ‘나’라는 건 알겠죠? 저축은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억지로 졸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해야 하는 것이란 걸 명심하세요.

그런데 통장에 든 내 돈을 혹시 다른 사람이 찾아서 쓰면 어떡하죠? 걱정마세요.

통장을 만들 때는 비밀번호란 걸 정한답니다. 비밀번호는 저축해 둔 돈을 찾을 때 필요한 암호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내 통장의 암호말이지요.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 때 정한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그렇다

고 비밀번호를 너무 흔하거나 맞추기 쉬운 번호, 예를 들면, 0000번이나 전화번호, 생일 같은 것으로 정한다면 다른 사람이 쉽게 맞출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번호는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제 통장을 만들 수 있겠죠? 뭐라고요? 돈이 없어서 통장을 못 만든다고요?

통장을 만들면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통장은 100원만 있어도 만들 수 있어요. 100원은 너무 적어서 저축하러 가기가 부끄럽다고요? 천만의 말씀. 100원이라도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잖아요. 적은 돈으로라도 일단 통장을 만들어두고 돈이 생기는 대로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백 원이 천 원이 되고, 천 원이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어느새 큰 돈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하러 가 볼까요?

투자를 할 때도 통장이 필요하답니다. 증권투자를 하는 통장은 은행의 저축 통장과는 달라요.

하지만 증권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은행통장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답니다. 대신 은행이 아니라 증권회사에 가서 만들어야 하지요.



투자는 내가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직접 투자’ 방식과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 대신 투자하도록 부탁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주식에 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투자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하는 돈은 반드시 내가 모은 용돈으로 한다’,

‘내가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한다’ 등과 같은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주식을 사고 난 후에는 정기적으로 경제 뉴스나 신문의 시세표를 보면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투자공부랍니다.

만약에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사고팔 자신이 없으면 ‘간접투자’를 하면 돼요.

간접투자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전문가는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를 해요.

이렇게 전문가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상품을 ‘펀드’라고 하고, 펀드를 관리해 주는 전문가를 ‘펀드매니저’라고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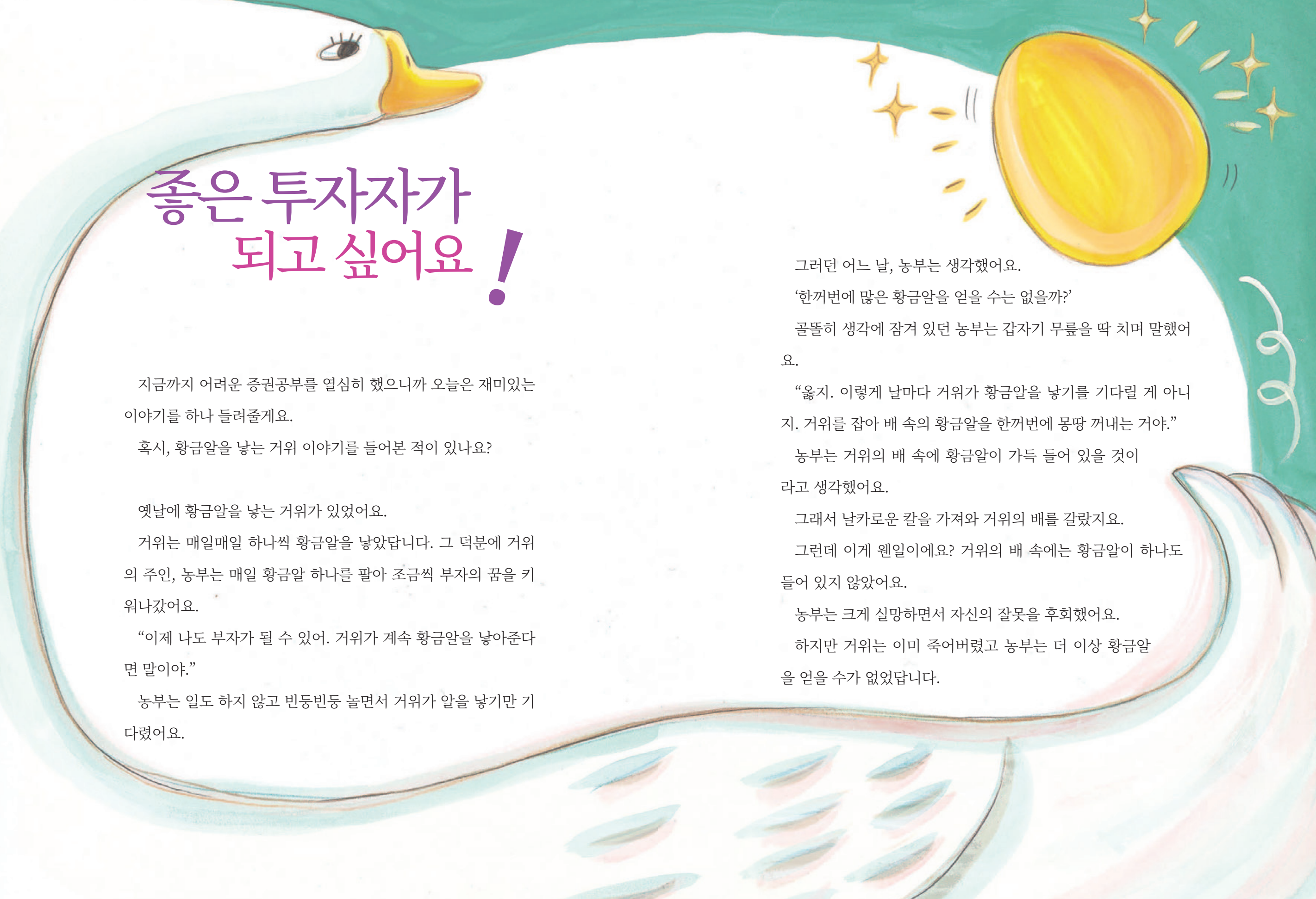
펀드는 전문가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비전문적인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펀드도 위험을 가진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또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대신 돈을 관리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내야 해요.

요즘은 증권회사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펀드’란 투자상품도 나와 있어요.

펀드에 가입할 때는 예상되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어느 증권회사가 관리하는 것인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등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증권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옛날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어요.

거위는 매일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았답니다. 그 덕분에 거위의 주인, 농부는 매일 황금알 하나를 팔아 조금씩 부자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이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거위가 계속 황금알을 낳아준다면 말이야.”

농부는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거위가 알을 낳기만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생각했어요.

“한꺼번에 많은 황금알을 얻을 수는 없을까?”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던 농부는 갑자기 무릎을 딱 치며 말했어요.

“옳지. 이렇게 날마다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를 기다릴 게 아니지. 거위를 잡아 배 속의 황금알을 한꺼번에 몽땅 꺼내는 거야.”

농부는 거위의 배 속에 황금알이 가득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가져와 거위의 배를 갈랐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거위의 배 속에는 황금알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어요.

농부는 크게 실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거위는 이미 죽어버렸고 농부는 더 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이 이야기가 좋은 투자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가끔 농부처럼 너무 성급하게 욕심을 내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할 때는 충분한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도 말이지요.

짧은 시간에 큰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투기꾼이지 좋은 투자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투자자가 좋은 투자자인지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

첫째,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야만 해요.

공부도 하지 않고 투자원칙도 세우지 않은 채로 주식투자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에요.

어떤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건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잘 모르는 일을 하는 낯선 회사보다는, 알기 쉬운 일을 하는 친숙한 회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차세대 IT산업’처럼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하는 회사보다는 ‘식품 회사’같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둘째, 너무 큰돈을 투자하지 않아야 해요.

가능한 한 내가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어린이들은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저축한 돈으로 투자를 해야겠지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게 되면 나중에 그 대가로 이자를 주어야 하므로 그만큼 이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빌린 돈으로 투자하다가 손실이 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성급하게 되팔아 버리게 되므로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셋째, 한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던 투자 격언을 잊지 마세요.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 보다는 3~5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속담과 격언으로 본 주식투자

1 | 꿈이 있는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른다.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회사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기에 따라 어떤 회사들이 성장할 전망이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2 |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

밀짚모자는 여름에 필요한 것인데 왜 겨울에 사라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름용품은 겨울에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주식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주식 중에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주식을 싸게 사 두라는 말이지요.

3 |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라.

주가는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주가만 보고 주식을 사고판다면 제대로 수익을 낼 수도 없고, 오히려 잦은 매매로 비용만 커진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단기간의 주가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넷째,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주식을 사고 나서 당장 주가가 올랐다고 팔아버려서도 안 되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꼼꼼히 따져서 투자한 종목이라면 그 기업의 가치만큼 충분히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주식투자는 잠깐 동안 주식을 샀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란 걸 명심하세요.

다섯째, 수익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만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안달을 내다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게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는지 하는 목적 말이에요.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투자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섯째,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투자일기를 써봐요.

내가 어떤 종목을 왜 샀는지, 주가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맞았고, 어떤 것은 틀렸는지 등등에 관한 투자일기를 써보세요.

투자를 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투자일기를 쓰면 자신이 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반성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더욱 분명하게 세울 수도 있어요.



저축과 투자

지금 당장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3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투자와 저축은 다른 건가요?

물론 다르지. 그전에 지호야. 넌, 저축을 왜 한다고 생각하니?

저축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소득의 일부를 미리 은행에 맡겨 놓는 거잖아요.

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와~ 역시 우리 아들 최고야!

헤~

그래, 맞아! 그 외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있지.

첫째, 은행에 돈을 맡기면 분실의 염려가 없다.
둘째,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가 늘어 돈이 더 많아진다.
넷째, 저축한 돈은 기업의 자금으로 활용되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즉, 저축은 '아껴서 모으다'라는 의미만 있지만 투자는 '이익을 기대한다'는 말도 포함이 되지!

예~에?

하하! 우리 지호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나 보군.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저축은 수익률이 다소 적고 또 이자가 붙어나는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원금은 절대 줄어들지 않지.

하지만, 기대와 달리 수익은 커녕 원금까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게 투자가 저축과 다른 점이야.

반대로 투자는 저축을 했을 때처럼 원금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아하~ 그런 거구나!



똑똑한 어린이를 위한 증권과 투자 이야기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한국거래소

본사_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서울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http://www.krx.co.kr>)

STAFF

글_김지수(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교수)

조정일(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연구교수)

이미용(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강사)

디자인_디박스

삽화_조영재

인쇄_금강프린텍

Copyright©2021 KOREA EXCHANGE. All Right Reserved.

이책을 무단 복사, 복제, 전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자본시장 이해하기 시리즈 ❶

똑똑한 어린이를 위한
증권과 투자 이야기

자본시장 이해하기 시리즈 ❷

미래를 여는 청소년을 위한
증권과 투자 교실

자본시장 이해하기 시리즈 ❸

초보 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따라잡기



KRX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